

2022

2022.11.16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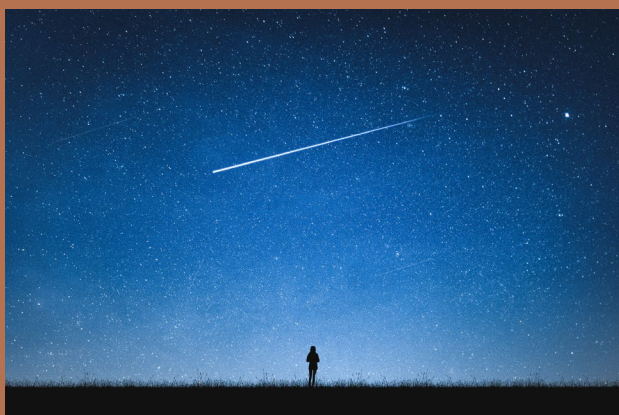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HIS Message



Devotion



HIS Spotlight



General News



ES News



시편 50: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Psalm 50:23

He who sacrifices thank offerings
honors me, and he prepares the way
so that I may show him
the salvation of God

MHS News



Nurse's Office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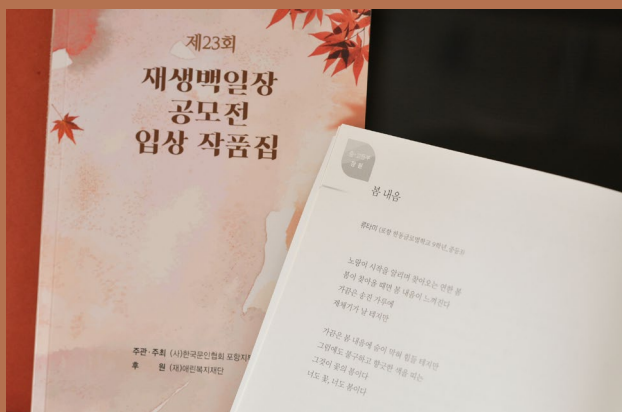
Counselor's Office News



Awards



Library News





HIS Message

Love Hall

01

By 김경란 | 생활관장

Ms. Kyeong-Lan Kim · Dormitory Director

HIS 컨시스토리를 꿈꾸며

Dreaming of HIS Consistory

컨시스토리는 삶을 교육하였던 기관입니다. 삶을 교육하는 기독교교육은 현대뿐만 아니라 16세기 칼빈의 시대에도 필요하였고, 시도되었습니다. 당시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재발견하여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는데 칼빈은 교육 실천 현장으로 제네바시(市)를 개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도들의 지식적 교육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안을 다루며 교육하고 훈련하였습니다. 그는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않고 실제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칼빈이 구축한 기독교교육의 핵심적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교육 기관인 제네바 ‘아카데미’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교육 기관인 ‘컨시스토리’입니다. 현대 교육에서 지식교육의 축에 중점을 두어 삶의 교육이 등한시되었다고 평가되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16세기 기독교교육에서 삶을 위한 교육을 간과하지 않고

Consistory was an institution that educated life. Christian education that teaches life is not only required in the modern days, but was needed and implemented in the 16th century when Calvin lived. The Reformers at that time attempted to reform the church by Christian faith based on the Bible, while Calvin worked on reforming the Geneva city. He trained and taught believers in their ordinary lives, by not only educating knowledge but dealing with actual matters. He did not divide faith and life but longed to see God reigning in everyday life.

Thus Calvin formed two main organizations of Christian education. One was the Geneva ‘Academy’ where focused on knowledge and the other was ‘Consistory’ that focused on education in life. Modern education is criticized for overly emphasizing knowledge education and neglecting real life issues. It is interesting to see how they dealt with concerns for life education back in the 16th century.

시행되었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칼빈은 추상적 신앙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삶을 통하여 실천하도록 이끄는 기독교교육을 전개하였습니다. 지식교육 기관인 아카데미와 함께 삶의 교육 기관도 구축하였던 것입니다. 삶을 교육하는 컨시스토리는 치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앙점검부터 하였고 신앙교육을 바탕으로 교육하고 회복시키고자 하였습니다.

16세기 칼빈이 개척한 삶을 교육하는 기관이었던 컨시스토리의 선례는 지금 또 하나의 HIS 컨시스토리를 꿈꾸게 합니다. 지식교육이 중점적으로 교육되는 곳이 학교라면 일상의 실제 삶을 교육하는 곳은 생활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활관은 학생들이 나와 다른 타인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신앙공동체 훈련을 하는 실천적 삶의 훈련장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는 열심히 잘하지만, 생활관에서는 공동체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 생활의 영역에서는 신앙과 행동이 불일치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배움과 신앙을 몸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공동체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이기심과 잘못된 습관을 끊고, 신앙과 학습과 삶이 통합되어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한 몸 된 HIS 공동체를 세우시고 준비시키십니다. 배운 지식을 일상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내도록 훈련하는 주님의 집, 'HIS 컨시스토리'를 꿈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한 몸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권위를 존중하고 규칙을 준행하며 공동체 질서와 안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생활관은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시민으로서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관여하며 다스리고 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에게 삶을 교육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신앙과 지식을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는 진정한 제자를 양성하라는 도전을 주십니다. HIS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이 사명을 위해 한 마음으로 꿈을 꾸고 전진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Calvin developed Christian education which could overcome vague teachings of faith and lead to applying through life. It was ultimately building both academics and life as two educational strands. The purpose of Consistory was not to discipline students per se but to guide them by helping them realize problems in their lives and learn to reflect on their faith based on Christian education.

This organization by Calvin that attempted to educate life in the 16th century is a precedent that inspires us to dream of HIS Consistory. If the school is for teaching knowledge, the dormitory is for educating the actual life of students. The dormitory is a training field for students to learn and practice their faith on forming the body of Christ as a community with diverse people. Some students excel academically, but ignore the rules within the community. Other students express their faith but actions do not match their words. These are examples of students who have difficulties balancing faith and life. They need to be cultivated as consistent Christians of integrated faith and life,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in community life. We are called by God to build up the HIS community as one body in Christ. We dream and pray for the 'HIS Consistory', the house of the Lord that trains us to put the knowledge we have learned into practice and live it in our daily lives.

The key to renewing God's Kingdom community is building up the beautiful one body of Christ, who redeemed us from our sins. This requires cooperation on respect for the authorities and standing by the rules for safety and peace in the community. The dormitory is working to train students in detail by guiding them to go by the rules in everyday lives. It is a difficult process yet during this era, God has given us a mission to teach how to live out our faith all the more. He challenges us to bring up genuine disciples who are able to perform their faith and knowledge in their ordinary lives. I sincerely hope that all members of the HIS education community will dream and move forward with one heart for this mission.

Devotion

02

By 앤드류 김 | 중고등 성경 교사
Mr. Andrew Kim · MHS Bible Teacher

세상의 빛, 빛나라

Shine as the Light of the World

제 딸 하엘(Haelle)이는 밝은 곳에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햇살이 얼굴에 비칠 때, 하엘이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따금 빛 줄기를 손에 쥐려는 듯한 동작을 보입니다. 또한 손전등이나 조명이 들어간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편, 여느 아이처럼 어둠을 무서워합니다. 어두울 때 엄마나 아빠에게 안아 달라고 울기 시작합니다. 혼돈을 상징하는 어둠이 시야를 가리자, 하엘이는 겁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커 가면서도 여전히 느끼는 어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둠은 무엇일까요? 바로 빛의 부재입니다. 그러나 여러 방면에서 어둠은 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종종 영화를 볼 때, 흔히 빛과 어둠의 대립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은 어두울 때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어둠은 악의 일을 하도록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어둠은 곧 예수님의 부재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며 어떤 곳은 유독 더욱 어둡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어둠과 우울함을 침투할 희망, 다른 말로 복음이 들어갈 소망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그만큼 어둡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는

My baby girl, Haelle, loves to play in the sunlight. She has a big smile as the sun shines on her face and sometimes, she tries to touch the sun and its light. She also likes to play with flashlights or her books that have lights in them. On the other hand, as most young children, Haelle has a fear of the dark. She will cry out for her mommy or daddy and want to be held in our arms when it is dark. The dark represents the unknown and when she cannot see anything, she feels scared. This is a feeling that many people continue to have even as they grow older, a fear of the dark.

What is darkness? Darkness is the absence of light. But in many ways, darkness represents evil. We see this played out in movies all the time, the light side versus the dark side. Evil takes its course when it is dark out. The darkness provides cover for evil to do its work. Jesus called himself the light of the world. If Jesus is the light, then darkness is the absence of Jesus. This world is a dark place, some places darker than others. In these dark places, there is no light because there is no hope of the gospel to penetrate through the darkness of hopelessness, dark and gloom. Jesus calls his followers to be the light of the world because

곳에는 어둠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둠 가운데에 빛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는 밝게 빛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빛은 어둠을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나와 반짝이게 됩니다. 이처럼 빛의 목적은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밝은 등이 있으면 감추지 않습니다. 빛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나는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저는 차마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그저 묻어감으로써 평탄하게 가만히 지내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세상과 섞이면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빛의 본질은 나타남이며 어둠 속에서 더욱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기에 우리가 본받고 그저 따른다면, 세상의 빛이 되라는 부르심의 목적을 타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당당히 서야 하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밝게 빛나지 않고 세상의 어둠과 섞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희미해져 감을 의미합니다. 죄의 습성을 따라 살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삶을 살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빛이 희미해지지 않고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도록 하십시오.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는 또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수 없어 어둠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눈을 떠서 어디로 가야 할 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그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선박이 부두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어둠 속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우리는 세상의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께 믿지 않는 자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there is so much darkness in the world. Where there is light, there cannot be darkness. Jesus calls his followers to be the light in the midst of the darkness.

As the light of the world, we are called to shine bright. Light dispels the darkness. If we have Jesus in our hearts, then we let the light of Christ shine in and through us. That is the purpose of light, to shine! As Jesus said, no one lights a lamp and then puts it under a basket. That would defeat the whole purpose of light. Have you ever thought to yourself “I just want to live a normal and quiet life.”? I admit there are times when I’ve had this thought. Just to live a normal and quiet life, not standing out in any way but sort of just blending in. But the problem is, Christians cannot just blend in with the world and live a quiet, normal life. Light by its very nature stands out, especially in darkness. This world is a dark place and if we try to blend in, then it means we are conforming to the world and defeating our purpose and calling to be the light of the world. We need to stand out and shine bright for Jesus. If we are not shining brightly but blending in with the darkness of the world, then it means we are dimming the light of Christ in us. We do this by living in patterns of sin, worshiping anything other than God, and living in a way that does not honor or please God. Don’t let your light dim but shine bright through the darkness.

As the light of the world, we are also called to show the way to Jesus. Unbelievers are spiritually blind, living in spiritual darkness. They need help to see and where to go. Christians can help to be that guiding light that points them to Jesus. Only Jesus can open their eyes but we can guide them to the one who is the light. So just as a lighthouse guides ships to dock safely at the harbor, we help guide non-believers to Jesus, the light of the world.

And finally, **as the light of the world, we are called to spread Jesus’ light.** How do we spread the light of Jesus? By sharing the love and good news of Christ! Every time we show loving kindness to others and

예수님의 빛을 어떻게 전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선하게 대하며 진리와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밝히면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칩니다.

어두운 밤 하늘에 한 개의 별이 떠 있는 것을 상상해보십시오. 단 한 개의 별이 드넓은 밤 하늘을 밝힐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별이 반짝이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나타난 별들이 모여 어둠 하늘을 밝은 빛으로 채우게 되는 것을 그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며 번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온세상에 밝히게 되며 이내 그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모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될 때, 가장 빛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의 어두운 사각지대를 밝히며, 나아가 온세상이 예수님의 빛으로 눈이 뜨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의 경이로운 사랑을 각자의 친밀한 방법으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As we speak words of truth and love, we spread His light so that it overcomes the darkness in the world.

Imagine looking up at the dark night sky and seeing a single star. That single star might not do much to dispel the vast darkness of the night sky. But imagine if another star shows up, then another and then another. Soon enough, the whole night sky is filled with stars and their light fills the night sky with a beautiful light. When we make disciples of Jesus and multiply, we spread the light of Christ throughout the world and soon enough, the light will dispel all the darkness in the world so that it will be full of light. As believers, we shine brightest when we are together as one, showing unity in Christ.

I hope and pray that all of us can live each day as the light of the world and help shine Jesus' light to the dark corners of this world until the whole world will have their eyes opened to the light of Christ and experience his amazing and transforming love in a personal way.

HIS Spotlight

03



방선기 | Mr. Sunki Pang

중고등 정보·컴퓨터 교사 • MHS IT·Computer Teacher

Q. 자라온 배경과 HIS로 오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Please share your background and how you came to HIS.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Following His Guidance like Abraham Without Knowing Where to Go”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고픈 바람이 담긴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저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던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집 앞에 새로 생긴 고등학교가 아닌 왕복 1시간 거리의 미션스쿨을 가게 되었던 일부터 고3 여름방학에서야 알게 된 저의 가장 소중한 한동대학교, 교사의 길을 시작하게 해준 캄보디아 선교지의 국제학교, 문과출신 대학교 3학년의 뒤늦은 컴퓨터공학으로의 전공변경, 예정에 없던 창업의 경험과 당연히 개발자의 길을 가겠다고 생각하던 시점의 이곳 HIS 컴퓨터교사 부임까지 하나님은 늘 저를 계획에 없던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참 신기했던 것은 단 한번도 강제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선택 직전 기존의 계획에서 마음을 변화시켜서 저 스스로 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늘 저에게 최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This is how I remember God guided me and also how I desire to continue my life following His steps.

As I look back, when I had to make important decisions, I rarely did according to my plan. Going to a mission school that was an hour round trip instead of a new high school nearby, getting to know Handong Global University I am now most grateful for at the last year of my high school, working at an international school in Cambodia that ultimately helped me start my career as a teacher, changing my major to computer science from the liberal arts department at the junior year of university, experiencing a startup I didn't plan, and becoming a HIS computer teacher when I was sure that I would be a developer - through all these He always led me to a new path. What is interesting is that God never led me by force but changed my heart from the original



HIS도 창업을 정리하고 있었던 저에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해외 출장 일정을 3일 앞두고 정신 없이 준비하는 상태에서 아는 동료의 소개로 HIS의 컴퓨터 교사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HIS 교사 서류 마감도 3일이 남았었습니다. 처음은 너무나도 바쁜 일정에 기간을 맞추는 수 없겠다는 생각과 개발자로서의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서류 작성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3일이라는 짧은 기간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한 마음이 강해져 공항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마무리해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출장지의 한 국제학교에서 다음세대의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사로도 잠시 일하게 하면서 교육과 다음세대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면접 자리에서 전하게 하였고 감사하게도 합격하게 되어 이렇게 HIS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lan right before I had to choose. He guided me to follow His desire and that choice always turned out to be the best for me.

HIS was an opportunity that came by when I was wrapping up a startup. An overseas business trip was 3 days ahead and I was busily preparing, but just then a friend informed me that HIS was recruiting a computer teacher. Coincidentally, the application deadline was also 3 days ahead. At first, it seemed impossible to fit the schedule and as I was pursuing my career as a developer, I wasn't going to apply. But during those 3 days, the passion of education grew stronger inside me and eventually I turned in the application at the subway on my way to the airport. Then I got to meet students at an international school during the business trip and worked as a teacher, which fueled my heart for the next generation. Later I talked about this experience at the interview and thankfully got accepted to be a member of HIS.

Q. 선생님이 하시는 일과 이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어떤 것인가요?

What kind of work do you do and what do you expect through it?

저는 HIS에서 학교 컴퓨터 관련 행정 업무와 음향 업무 그리고 컴퓨터교사로서 7~12학년 모든 컴퓨터 수업을 맡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4차 산업혁명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익혀야 하는 소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 컴퓨터 그리고 코딩을 어려운 것, 복잡한 것 등이 아닌 편리하고 즐거운 것이고 내가 상상하던 것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도구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또 단순히 교과를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어 즐겁게 놀고 장난도 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나 생각도 들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학생들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I am in charge of administrative work related to the computer and sound control within the school. Also I am teaching computer classes for 7~12th grade students.

Computers are now a quality required for us who live aft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 would like to introduce a computer and coding not as something complex and difficult but as something convenient and joyful, which allows our imagination to become reality.

Also I want to be a teacher who can befriend students, playing around and listening to their stories without limits on the topics of the subject that I teach. I hope that I can be of help on their growth in character and faith.

Q.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눠주세요.

Do you have any prayer requests?

1.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되도록
2. 내가 먼저 삶에서 예배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1. To show more interest and give love to students
2. To be a worshiper in life beforehand as a teacher

General News

2023 신입학 시험 및 면접

2023 New Students Admissions Tests and Interviews

04



By 김미경 | 중고등 입학

Ms. Mikoung Kim · MHS Admissions

2023 신입학 시험 및 면접

2023 New Students Admissions Tests and Interviews

2023학년도 초, 중, 고 신입학 학부모 면접을 10월 19~22일 순조롭게 진행했습니다. 10월 22일(토)에는 학생 면접 및 평가가 있었는데, 신입학 전형자는 초등학교 과정 33명, 중학교 과정 37명, 고등학교 과정 30명이었고, 학부모와 교직원 은 약 200명이 전형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300여 명이 모이는 큰 행사를 맑고 따뜻한 날씨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형에 참여한 교직원분들께도 감사합니다.

Parent interviews for 2023 new students admissions were implemented during October 19~22th. On Oct 22th(Sat) we had students' tests and interviews at our school. 33 elementary school candidates, 37 middle school candidates, and 30 high school candidates participated. Parents and faculty and staff added up to 200. We are grateful to God who allowed us to run this event with more than 300 participants smoothly in decent weather in spite of COVID-19. We would also like to thank our staff and faculty for participating in the event.

ES News

학부모 교사 상담의 날

PTC(Parent Teacher Conference) Day

1-5학년 현장 체험학습

1-5th Grade Field Trip

6학년 졸업 여행

6th Grade Graduation Trip

SKAC 풋살 대회

SKAC Futsal Tournaments

05

By 박에스더 | 초등 디렉터
Ms. Esther Park · ES Director

학부모 교사 상담의 날

PTC(Parent Teacher Conference) Day



11월 4일, 초등학교에서는 PTC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학부모님과 대면하여, 학생의 학교 생활과 학습 상태에 관하여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함으로써 협력하여 학생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한 유익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On November 4th, the elementary division had PTC. It was the first time to invite parents to school for a face to face meeting since COVID-19. Teachers and parents had time to pray together, to discuss the students' progress, and to encourage one another in our joint effort to nurture our students as Kingdom agents.



By 조하나 | 초등 국어·사회 교사
Ms. Hana Jo · ES Korean LA·SS Teacher

1-5학년 현장 체험학습 1-5th Grade Field Trip



10월 26일, 하늘이 높고 푸르던 날, 1-5학년 학생들이 울진 왕피천 공원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아쿠아리움에서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을 뽐내는 물고기들도 보고, 수달들이 서로 장난치며 노는 귀여운 모습도 구경하였습니다. 곤충체험관에서는 크고 작은 곤충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벌레 등 기네스북에 오른 곤충들도 멋지게 표본 되어 있어서 관람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안전 체험관에서는 화재 대피 체험, 지진체험, 배 탈출 체험, 심폐소생술, 차량 전복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처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현장 체험 학습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5학년 학생들에게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

On October 26th, a day when the sky was high and blue, students in grades 1-5 went to Ulsan Wangpicheon Park for a field trip. They viewed fish with beautiful colors and otters playing with each other in the aquarium there. The insect center was interesting as it exhibited various sizes of insects along with samples that were recorded on the Guinness Book of Records. In the Safety Experience Center, they were able to practice preparing for safety accidents through various experiences such as fire evacuation experience, earthquake experience, ship escape experience, CPR, and vehicle overturning experience. It was helpful in that they were able to experience virtual simulations which felt real. We thank God for being with us so that we could enjoy the field trip safely in the sunny autumn weather. Hopefully it was a memorable time for 1-5th grade students. ^^



By 이정은 | 초등 6학년 교사

Ms. Jung Eun Lee · ES Grade 6 Teacher

6학년 졸업 여행

6th Grade Graduation Trip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6학년은 초등 마지막 학년을 맞이하여 졸업여행으로 강원도에 다녀왔습니다.

During Oct 26-28th, 6th grade students had a graduation trip at Gangwon-do to commemorate their last year in Elementary School.

DAY 1

첫날에는 동굴체험을 위하여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천곡황금박쥐동굴을 방문하여, 그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종유석을 관찰하며 동굴의 유래 등,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는 파도가 높은 관계로 기존의 서핑계획을 취소하고 강릉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볼링장에 방문하여 볼링을 즐겼습니다. 저녁에는 평창에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에 가서 짐을 내려둔 후, 리조트 내부를 탐방하고 저녁식사를 하였고, 방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겸 안내 및 주의사항을 나눴습니다.

On the first day, we visited Cheongok Golden Bat Cave in Donghae and viewed various forms of stalactite, learning about the origin of caves by following the tour guide. Due to the high waves, our plan to surf was canceled, so we headed to the National Sports Center Bowling Ground in Gangneung instead. In the afternoon, we unloaded our baggage at the Alpensia Resort in Pyeongchang, had dinner and an orientation along with announcements.



DAY 2

둘째 날에는 아침 식사 겸 그룹별 말씀구절 묵상의 시간을 가진 후, 알펜시아 스키점프 타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모노레일을 탑승하여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했으며, 스키점프타워 전망대에서는 그곳의 높이를 만끽하고 실제 점핑구역에 방문하여 선수들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부터 도전해야 했는지를 실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오션700 워터파크에 방문하여 즐거운 물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 저녁은 마지막 저녁이기에 여러가지 단체게임을 즐긴 후, 학교에서 미리 학부모님들께 부탁드렸던 편지를 각자 읽고 답장을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The second day started with breakfast and meditation on the Bible in small groups. Then we headed to the Alpensia Ski Jump Tower. By taking the monorail, we saw the beautiful scenery on the way. At the observatory, we felt the height of the jumping area where athletes actually challenge themselves. Later, we visited Ocean700 Water Park and had fun in the water. Since it was the last day of our trip, students enjoyed group activities and wrote back letters to their parents after receiving their parents' letters which we requested beforehand.



DAY 3

마지막 날에는 아침 일찍 나와 대구로 이동한 후 점심 식사를 외부에서 가진 후 대구이월드에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명의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 아이들은 다치는 일 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잘 놀았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화창한 날씨 가운데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허락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6학년 아이들의 마음 속에 이 여행이 무척 즐겁고 따뜻한 추억으로 남기를 기도합니다.

In the early morning, we went to Daegu and had lunch. After we entered E-World, students enjoyed their time safely within the directions of three staff members. Though it was a long trip, we are grateful for the nice weather God allowed us for each day. We hope 6th grade students remember their graduation trip as a warm and joyful time.



SKAC* 풋살 대회

SKAC Futsal Tournaments

By 박에스더 | 초등 디렉터
Ms. Esther Park · ES Director



9월 23일, SKAC 풋살 토너먼트 대회에서 3개의 초등학교와 함께 경기를 가졌습니다. 한동대학교 평봉필드에서 진행된 경기이자 우리 학교 주관으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참여하시고 학생들이 응원해 주었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학생들의 스포츠맨십이 빛나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By 오시경 | 초등 국어/사회 교사
Ms. Sikyung Oh · ES G4 Teacher



HIS SKAC 풋살 팀은 11월 5일 부산국제학교에서 열린 시험에서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모든 선수가 한 경기마다 열심히 뛰어주었고 최선을 다해주었습니다. 우리 HIS 선수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학생들과 교사 모두가 값진 경험을 얻은 하루였습니다!

@HIS | 1st Round



On September 23, three elementary schools participated in the SKAC futsal tournament. Many parents and students came to cheer for the teams because HIS hosted the tournament in HGU field. It was a beautiful day with great weather and sportsmanship.

@ISB | 2nd Round



HIS SKAC Futsal team did a fantastic job in their matches at International School of Busan (ISB) on October 5th(Sat). They all were running hard and gave their best effort in their games. I was very impressed and proud of them. We had a great experience throughout the day!

MHS News

Movie Night

10-12학년 미술 수업

10-12th Grade Art Classes

채플을 위한 운동

Movement for Chapels

학부모 교사 상담의 날

PTC(Parent Teacher Conference) Day

그린핑거스

Greenfingers

제주도 캠핑 트립

Jeju Camping Trip

06

Movie Night

By 김소중 | 학생회 담당 교사

Ms. Sojoong Kim · Teacher in Charge of Student Council

3분기를 무사히 마친 중고등 학생들을 위해 학생회에서 무비나잇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무비나잇은 특별히 소운동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여 진행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여 무비나잇 때에도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해 아쉬움이 컸는데, 지난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팝콘, 솜사탕 등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되어 더욱 풍성한 무비나잇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중간고사로 지쳐있던 HIS 학생들이 재미있는 영화, 사랑하는 친구들, 맛있는 음식으로 재충전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무비나잇을 위해 섬겨준 학생회 임원들에게 큰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The Student Council prepared Movie Night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fter the 3rd quarter of the year. This time, it was especially held at the small court with a wide screen set up for the event. For the last two years, we had to refrain from eating during Movie Night due to COVID-19 prevention. However, after wearing masks became optional from September this year, students enjoyed popcorn, cotton candy, and other snacks together as they watched a movie. It was a refreshing time for students, watching a movie with friends and enjoying delicious snacks. A big congratulations and applause to the Student Council for their service for the Movie N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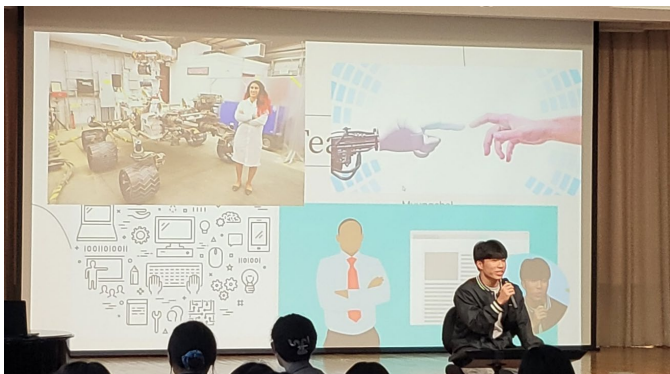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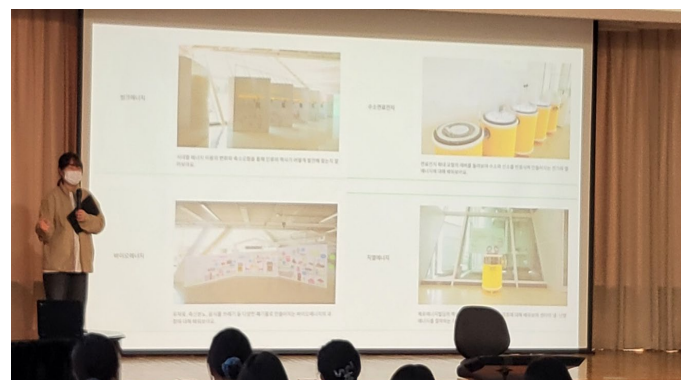
10-12학년 미술 수업

10-12th Grade Art Classes

By 윤영실 | 중고등 미술 교사
Ms. Young Shil Yun · MHS Art Teacher

11학년 비전트립 발표

11th Grade Vision Trip Presentation



11학년 공연예술기획/공연실습(음악) 시간에 각 전공별로 비전트립을 기획하여 온라인 멘토를 인터뷰하고 관련 기관을 방문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전공별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In the 11th grade Music and Performance/Art and Performance class, students reported their vision trip plans as well as the results of interviewing their mentors online and visiting related institutions by the following major groups:

1. 국제, 어문, 경영, 경제
2. 디자인
3. 엔지니어링
4. 생명, 화학
5. 사회문화
6. 소비자학, 문화인류학
7. 음악,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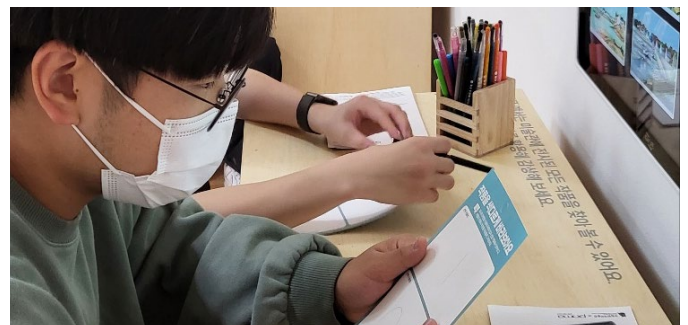
1. International Studies, Languages & Literature, Management, Economics
2. Design
3. Engineering
4. Life Science, Chemistry
5. Science Culture
6. Consumer Science, Cultural Anthropology
7. Music, Broadcasting

12학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순회전 방문

12th Grade MMCA Exhibition Tour Visit



12학년 미술과 생활 수업에서 포항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립현대 미술관 소장품 순회전을 관람하고 체험활동도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시를 통해 1980년대 미술의 흐름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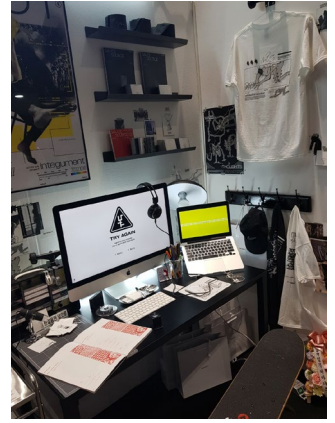
In the 12th grade Art and Life class, students visited the MMCA Exhibition Tour at Pohang Museum Of Steel Art and had meaningful experiences. They learned the history of art in the 1980s.

10, 12학년 한동대학교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졸업전시회 방문

10, 12th Grade HGU Contents Convergence Design Graduation Exhibition Visit

10, 12학년 미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지난 10월31일, 11월 1일에 한동대학교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졸업 전시회를 관람하였습니다. 디자인 관련 학과로 진학할 경우, 학생들의 관심 분야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10th and 12th grade students taking art classes visited the graduation exhibition of Handong Global University Contents Convergence Design. It was a good opportunity for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majoring fields related to design in the future.



특히 한동대의 복수전공 시스템 특성 상, AI,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이 녹아있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서 디자인 외의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학교 출신 선배들이 다수 출품하여서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Students who are seeking other majors such as AI, marketing, etc. could view various fields connected in the artworks, due to the double-major system of HGU. We also met our alumni and had time listening to the design process and details of their artworks.

채플을 위한 운동

Movement for Chapels

By 윤영실 | 중고등 학생부장

Ms. Young Shil Yun · MHS Student Life Team Leader



중고등 학생회는 학생들의 채플시간 예배 회복을 위한 영적 계몽 운동을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세요!

MHS Student Council has made posters encouraging students to focus on worshiping God during chapels. We ask for your prayers for the mo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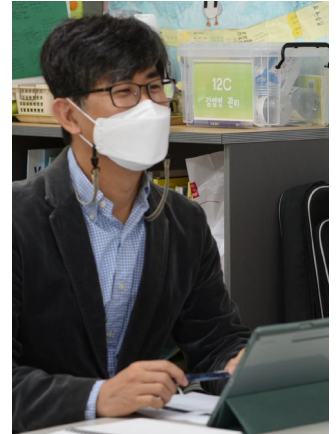


학부모 교사 상담의 날

PTC(Parent Teacher Conference) Day

By 박인옥 | 중고등 교무 부장

Ms. In Ok Kwak · MHS Academic Team Leader



2학기 중고등 학부모 교사 상담(PTC)이 10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자녀가 수강 중인 과목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와 사전 예약한 시간에 교실에서 또는 Zoom으로 만나 자녀의 영성, 지성, 인성 등을 점검하고 주 안에서 자녀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부모는 “외국인 교사와 소통을 할 때 통역이 있어서 좋았으며 코로나 이후 선생님들과 면대면 상담을 처음 한 것도 의미 있었습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PTC는 학기 당 1회 진행됩니다.

Parent Teacher Conference(PTC) Day was held this semester on October 28th, from 9 am to 5 pm, on/offline. Parents were able to meet teachers according to the reserved schedule at classrooms or via Zoom. Through the meeting, they went through the student's spirituality, academics, character, etc. and discussed how to help the student grow holistically in Christ. A parent gave a feedback: “It was nice to have a translator for communicating and it was a meaningful time to meet teachers in person after COVID-19.” PTC is a one-time event per semester.



그린핑거스

Greenfingers

조하림 · Harim Cho (11A) | 박경태 · Kyungtae Park (11A) | 김진현 · Jinhun Kim (11A) |
 노혜원 · Hyewon Roh (11A) | 김정원 · Jungwon Kim (10A) | 정하나 · Hana Zong (11A) |
 권수민 · Sumin Kwon (11A) | 류정 · Jung Ryu (11A) | 김희준 · Heejun Kim (11B) |
 안현빈 · Hyunbin An (11A) | 김강희 · Kanghee Kim (11A) | 이명철 · Myungcheol Lee (11C)

그린핑거스(Greenfingers)는 2021년 제주국제학교에서 시작된 환경동아리로 현재(2022년) '그린핑거스 제주'와 '그린핑거스 포항'으로 구분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핑거스 포항은 2022년 3월에 한동글로벌학교의 9명의 11학년 학생들과 1명의 10학년 학생에 의해 창단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린핑거스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생태문제를 포착하고, 과학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정책을 고민하는 독자적 연구집단입니다. 가장 로컬한 문제가 가장 글로벌한 문제와 연결된다는 믿음으로, 그린핑거스 팀은 오직 한반도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의 멸종현상을 집중적으로 다뤄왔습니다.



Greenfingers is an environmental club that started from Jeju International School in 2021 and continues its activities separately in Jeju and Pohang. Greenfingers Pohang was founded by nine 11th grade and one 10th grade HIS students in March, 2022. It is an independent research group formed by students who seek to discover local ecological issues, find scientific solutions, and discuss policies for the future. With the belief that a local problem is connected to global issues, Greenfingers has been focusing on the endangered endemic species which exists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환경교육학회 소논문 및 포스터 발표

Society for Environmental Education Short Thesis and Poster Presentation

기간 | 2022.3.26 - 2022.6.18

문제제기

- 포항에서 멀지 않은 경상북도 개령에서 처음 발견된 고유종 '동양달팽이'(*Nesiiohelix samarangae*)의 서식지인 전국 산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러한 경향이 본 종에서 미칠 영향을 규명하고 보존전략을 수립하기에는 본 종의 기초적인 연구가 부족함
- 육상 달팽이의 성장률, 사망률 및 번식률은 섭취한 먹이의 종류에 영향을 받으며 그 차이가 먹이에 대한 선호로 나타나는 만큼(Teyke 1995, Watanabe 1984, Desbuquois & Daguzan 1995), 본 종의 먹이 선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동양달팽이의 근연종인 정원달팽이는 서식지 선호에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선호의 차이에 따라 발육 및 영양상태가 달라지기에(Dan, 1978) 본 종의 서식지 선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Period | Mar 26th - Jun 18th, 2022

Problem Statement

- '*Nesiiohelix samarangae*' was first discovered in Gaegyeong, Gyeongbuk, which is not far from Pohang. Though national forests, which is its habitat, have continuously decreased, this tendency is not enough to find the influence and establish preservation strategies due to a lack of basic research on the species.
- The species needs further research on its food attractiveness. as the growth, death, and reproduction rate of a land snail is influenced by the type of its intake and results as its food attractiveness(Teyke 1995, Watanabe 1984, Desbuquois & Daguzan 1995).
- The species needs further research on its habitat preference, as a garden snail, which is related to an oriental snail, not only shows a difference in its preference of habitat, but as the difference of preference influences growth and nutritional status(Dan, 1978).



학술활동

- 환경교육학회 2022 상반기 학술대회 참가
- 2022 조하림 외, '동양달팽이 *Nesiohelix samarangae*의 먹이선호 *attractiveness*에 대한 실험연구: 대한민국 자생 사물기생버섯 간 비교' 2022 상반기 학술대회 포스터발표, 전남 자연 환경 연구원
- 2022 박경태 외, '활엽수 및 침엽수 유래 토양 유기물층(O층)에 대한 동양달팽이 *Nesiohelix samarangae*의 선호 비교' 2022 상반기 학술대회 포스터발표, 전남 자연 환경 연구원
- 위 두 논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재
- 두 논문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 등재 및 등재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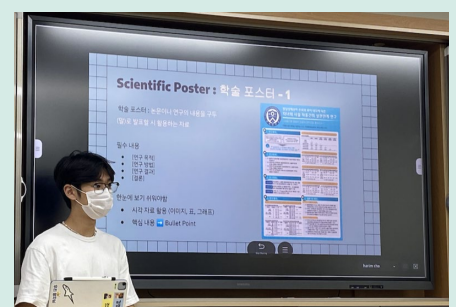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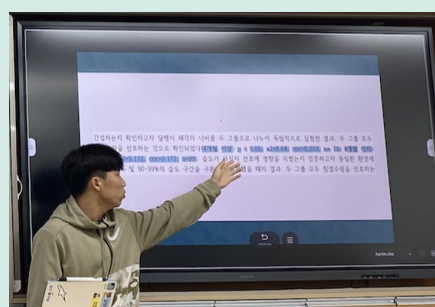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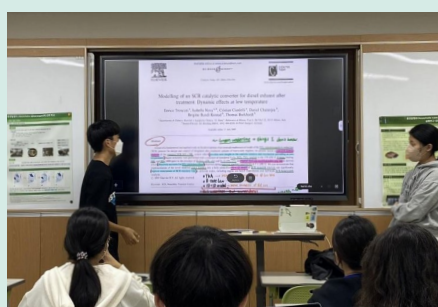


교내 튜터링

Tutoring HIS Students

일시 | 2022.09.26

- 소논문 작성에 사용한 정보들을 4팀으로(리서치팀, 논문작성팀, 데이터팀, 실험디자인팀) 나누어 한동글로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튜터링을 진행하였음



Academic Activities

- Participated in 2022-1 Society for Environmental Education Conference
- "Research on food attractiveness of *Nesiohelix samarangae* : comparison of Korean wild parasitic mushrooms" (Harim Cho et al., 2022) Conference Poster Presentation, Jeonnam Training Center for Natural Environment
- "Comparing attractiveness on common soil organic matter layers of a broadleaf tree and needleleaf tree by *Nesiohelix samarangae*" (Kyungtae Park et al., 2022) Conference Poster Presentation, Jeonnam Training Center for Natural Environment
- Both theses above registered in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RISS>
- Both theses planned to register on Google Scholar

Date | Sep 26th, 2022

- Tutor session for HIS students held by 4 teams(Research, Thesis Writing, Data, Experiment Design), classified by resources used for the short thesis habitat, but as the difference of preference influences growth and nutritional status(Dan, 1978).



분리수거 프로젝트 (진행 중)

Separate Collection Project (in progress)

문제제기

- 한동글로벌학교 내에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제대로 된 분리수거 쓰레기통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음

활동

- 한동글로벌학교 학생들의 분리수거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 대한민국 분리수거 지침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조사
-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포스터를 제작해 학교에 붙임
- 분리수거 기본 지식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카드뉴스 제작
- 학교의 쓰레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간이 쓰레기통 제작 및 이를 활용한 실험 진행
-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분리수거 방법 퀴즈
-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 퀴즈’의 고득점자들에게 친환경 기업의 제품 증정

돌고래 프로젝트 (진행 중)

Dolphin Project (in progress)

문제제기

- 이번 캠핑트립 때 한화 아쿠아플레닛 제주에서 관람한 돌고래 쇼의 이면에 숨겨진 동물학대와 생태계 파괴의 진실을 교내 학생들이 알지 못하고 있음

활동

- 돌고래 쇼의 문제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를 하기 위해 설문지를 돌려 정보를 수집함
- 학생들에게 돌고래 쇼의 문제점을 알려주기 위한 카드뉴스를 제작함.
- 다큐멘터리 ‘더 코브’를 바탕으로 돌고래 쇼 산업 이면의 진실과 쇼에 사용되는 돌고래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함.



Problem Statement

- The system of the trash cans inside our school is unsorted and there is no bin placed for separate collection of waste

Activities

- Survey for HIS students' recognition of separate collection
- Research on Korea's guidelines for separate collection
- Posters posted on the wall to inform correct method of separate collection
- Card news to inform students on basic knowledge of separate collection
- Set up a small trash bin and held an experiment on the current situation of waste sorting
- Quiz to inform students on how to correctly separate collection of waste

Problem Statement

- Students do not know the truth of animal abuse and adverse effects on the ecosystem of the Hanwha Aqua Planet Dolphin Show we watched at Jeju on our camping trip

Activities

- Take a survey on students regarding the problem of the Dolphin Show
- Make card news graphics to inform students about the problem of the Dolphin Show
- Research on the dark side of Dolphin Show business and the problems dolphins used in the show are facing, based on the documentary film *The Cove*



캠핑트립 주제가 | 새로고침

Camping Trip Theme Song 01

<http://bit.ly/3UYuDpj>

프로듀싱 | 천강희 홍준화
보컬 | 김소윤 홍준화 박주형 이진명
작사 | 김세운 홍준화 박주형 이진명
디렉팅 | 김세운
믹싱 | 천강희 (동아리 MUPE 2022)

Producing | Kanghee Cheon Joonhwa Hong
Vocal | Soyoon Kim Joonhwa Hong Juhyung Park Jinmyeong Lee
Lyrics | Seyun Kim Joonhwa Hong Juhyung Park Jinmyeong Lee
Directing | Seyun Kim
Mixing | Kanghee Cheon (Club MUPE 2022)

전부 다 새로 redesign
 전보 다 가까워진 사이
 눌러버려 새로고침 F5
 바꿔버려 새로고침 F5 (x2)

높은 하늘이 우리를 반길 때
 양떼 같은 구름들이 해를 가리네
 퍼즐 처럼 다 다시 끼워 맞추고 싶어
 이전과는 다르게 다 새로고침 해
 높은 산과 자연이 나를 반길 때
 기분은 알 수 없이 나른나른 해
 자유와 휴식을 허락하신 그분
 어제의 나와는 다른 모습 보여내

다시 돌아가지 않아 예전의 그 나이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태어 났으니
 Never going back never going back
 전부 redesign
 사람 한번 변했다고 달리 보진 않길
 이제부터 차근차근 이뤄 내 인정 받는 사람이 (되길)
 Never going back never going back
 전부 redesign

전부 다 새로 redesign
 전보 다 가까워진 사이
 눌러버려 새로고침 F5
 바꿔버려 새로고침 F5 (x2)

전부 다시시작 F5
 God bless 몸만 맡겨
 주 위해 살리 찬양 받기 합당하신 주
 Maybe our time
 수고한 학생들에게 찬사 힘들어도 it will be fine
 redesign 전부 새로고침 해
 걷고 또 걸어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힘든 생각도 안나
 keep go work hard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
 because of you I can sing for everyday all night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야기
 새로 시작해보자고 리디자인
 키보드 위 눌러버린 F5 새로고침 해
 우린 본받지 않아 이 세대
 오직 믿을 건 신의 지혜
 나쁜 것들은 모두 피해
 날아 왔으니까 지금 제주네
 마음은 새롭게 변하네

hey Handong have a good trip
 having good time and a good day
 위해 기도할게 닦아내고 견뎌내서
 웃음만 남을 수 있게 (x2)

전부 다 새로 redesign
 전보 다 가까워진 사이
 눌러버려 새로고침 F5
 바꿔버려 새로고침 F5 (x 2)

2022 HIS CAMPING TRIP
 11.2 (WED) ~ 11.5 (SAT)
 RENEW OUR MIND

Re:Design
 in Jeju

Day 1	Day 2	Day 3	Day 4
닦아내다 Wipe off	이겨내다 Overcome	이루어내다 Fulfill	살아내다 Live out



<https://bit.ly/3tBIBmO>

캠핑트립 주제가 | Re-design

Camping Trip Theme Song 02

어두운 내 작은 방에 홀로 지냈던 지난날
변화를 꿈꾸던 밤에 용기가 없어

혼잡한 내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을때
빛났던 기억을 안고 살아내보자 이겨내

Redesign 닦아내 Redesign 살아내
Redesign 우리는 이뤄낼거야
이겨내 Redesign 닦아내 Redesign
살아내 우리는 이뤄낼거야

Redesign 해줘 날 닦아낼거야
Redesign 해줘 이겨낼거야
쓰러지지 마 넘어지지 마
결국엔 이뤄낼거야
Redesign 해줘 Redesign Redesign

쌓였던 먼지를 털어 알록달록한 물감으로
너만의 캔버스를 채워 design again

지난날의 상처를 털고 다시 일어나서
빛났던 기억을 안고 살아내보자 이겨내

Redesign 닦아내 Redesign 살아내
Redesign 우리는 이뤄낼거야
이겨내 Redesign 닦아내 Redesign
살아내 우리는 이뤄낼거야

Redesign 해줘 날 닦아낼거야
Redesign 해줘 이겨낼거야
쓰러지지 마 넘어지지 마
결국엔 이뤄낼거야
Redesign 해줘 Redesign Redesign

제주도 캠핑트립

Jeju Camping Trip

By 김세윤 | 중고등 과학 교사
Mr. Seyoon Kim · MHS Science Teacher

DAY 1



과연 새벽 3시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늦지 않고 학교에 모일 수 있을까 걱정했었지만 다행히 제시간 안에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자다가 졸린 눈을 비비고 공항에 도착해서 뭔가 빠뜨리거나 놓치는 것이 있을까봐 더욱 정신 차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항공권을 발권하여 짐을 부치고 비행기 탑승하는 데까지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인솔을 잘 따라주어서 무사히 제주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학생들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국립제주박물관에 여행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박물관 투어는 늘 그렇듯이 재빠르게 보는 학생은 빠른 걸음으로 벌써 다 둘러보고 노는 학생들이 있었던 반면 자세히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학생들은 시간이 부족할 만큼 꼼꼼하게 제주도만의 독특한 문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수목원 테마파크에서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고 특히 얼음으로 뒤덮인 방 안에서 신나게 미끄럼틀을 타고 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캠핑트립 오기 전에 역사 시간에 미리 배웠던 4.3사건의 기억을 보존한 4.3박물관을 둘러서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 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추악한 본성을 지닌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겸허한 마음으로 희생자들의 비석을 닦고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한 후에 학년별로 열심히 준비한 장기자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음향, 조명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뮤직뱅크에서나 볼법한 무대 세팅을 하고 유재석과 조세호와 견줄 수 있는 MC 진행을 했던 배연호와 Gladymar 선생님, 각 학년의 다양한 컨셉으로 발라드에서 댄스, 랩, 뮤지컬까지 선보인 각 학년과 열띤 호응을 해준 학생들까지 제주도에서 멋진 첫째날 밤을 보냈습니다.

Unlike our concern, all students and teachers were punctual and arrived at 3am. We then headed to the next destination. With drowsy eyes, we made the way to the airport and kept alert in case we had left something out. Thankfully, students carefully followed the lead of teachers on issuing an air ticket, checking in their luggage, and riding on the plane. First, students started the trip by visiting the Jeju National Museum, where they learned about the history and culture of Jeju. As museum tours usually turn out, some students quickly skimmed and lingered around, while some observed the unique culture of Jeju with interest. At the arboretum theme park, there were lots of interesting places, especially where students enjoyed sliding inside a room covered with ice. Next, we visited the Jeju 4.3 Museum, which was preserving the memories of our past. As students learned before the trip, we reflected on how sinful and weak we are as humans and humbled ourselves, wiping off the dust of the headstones of casualties and picking up trash. Then students returned to the hostel and rested, while preparing for the talent show. With the sound and light handled by professionals and Ms. Gladymar & Yeonho Bae as hosts, reminding us of Mr. Yoo & Mr. Jo, the stage was all set up just like Music Bank! The first night of the trip was heated up by the various performances of students singing, dancing, rapping, and even performing musicals, along with an enthusiastic audience altogether.

DAY 2





둘째 날은 일찍 기상하여 한라산으로 향했습니다. 정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5~6시간이 소요되는 산행이었기 때문에 예행연습도 하고 전투식량도 준비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버스 주차장에서 영실코스 입구까지도 2km정도 올라가야 하는 길이라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려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 고비를 넘기고 영실코스를 등반 했을 때 맑은 날씨와 함께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 보였습니다. 서로 힘들 때 격려해 주며 선배가 후배들을 하나하나 챙기는 모습을 보며 학교 안에서보다 오히려 아이들이 바깥에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행 후 숙소에서 돌아와 돼지 한 마리를 통으로 굽는 바베큐를 맛있게 먹고 기대했던 하다쉬 뮤직의 콘서트 예매를 기다렸습니다. 작년 쇼미더머니에서 6위를 차지했던 아네티라이트의 무대는 공연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예배였습니다.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공중파 방송에서 랩으로 표현했던 간증을 하며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첫째 날의 환호와 반응은 무대의 주인공들을 향했다면, 둘째 날 밤은 기도와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We woke up early for the second day and went to climb Mt. Halla. Though we did not reach the top of the mountain, students had practiced walking for a long distance before the camping trip and prepared a combat ration as the course took 5-6 hours. Since the distance from the parking lot and Young Shil course was 2 km long, some students wanted to give up before they even started, but once they climbed a beautiful scenery was awaiting them. It seemed that students shine more brightly outside of school, taking care of one another. After we finished the course, students returned to the hostel, had pork barbeque, and finally waited for the worship concert starring Hadash music. The 6th place star of Show me the money Anandelight's performance was a time of worshipping together rather than a show. His testimony on how he sincerely confessed his faith through rap in public broadcasting touched the hearts of students. If the first day's cheering audience were towards each other, the second day was a time of praising God with prayers and worship.

DAY 3



섭지코지, 아쿠아플라넷, 감귤따기 체험, 레일바이크 그리고 메이즈랜드까지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섭지코지에서는 바람이 너무 세서 눈도 간신히 뜰만큼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We woke up early for the second day and went to climb Mt. Halla. Though we did not reach the top of the mountain, students had practiced walking for a long distance before the camping trip and prepared a combat ration as the course took 5-6 hours. Since the

사진을 찍었지만 여유롭게 바다를 보기에는 학생들이 너무 추워했던 것 같아서 아쉬웠지만 바로 옆에 있는 아쿠아플라넷에서는 광대한 스케일로 여러 생물들을 볼 수 있어서 학생들이 관심있게 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어 마지막으로 러시아에서 온 듯한 분들이 돌고래쇼와 함께 멋진 공연을 봤습니다. 아찔하게 높은 다이빙대에서 다이빙을 하며 물개와 돌고래가 공연을 하는 모습은 신기했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하고 난 뒤 마지막 날 밤은 부흥회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DAY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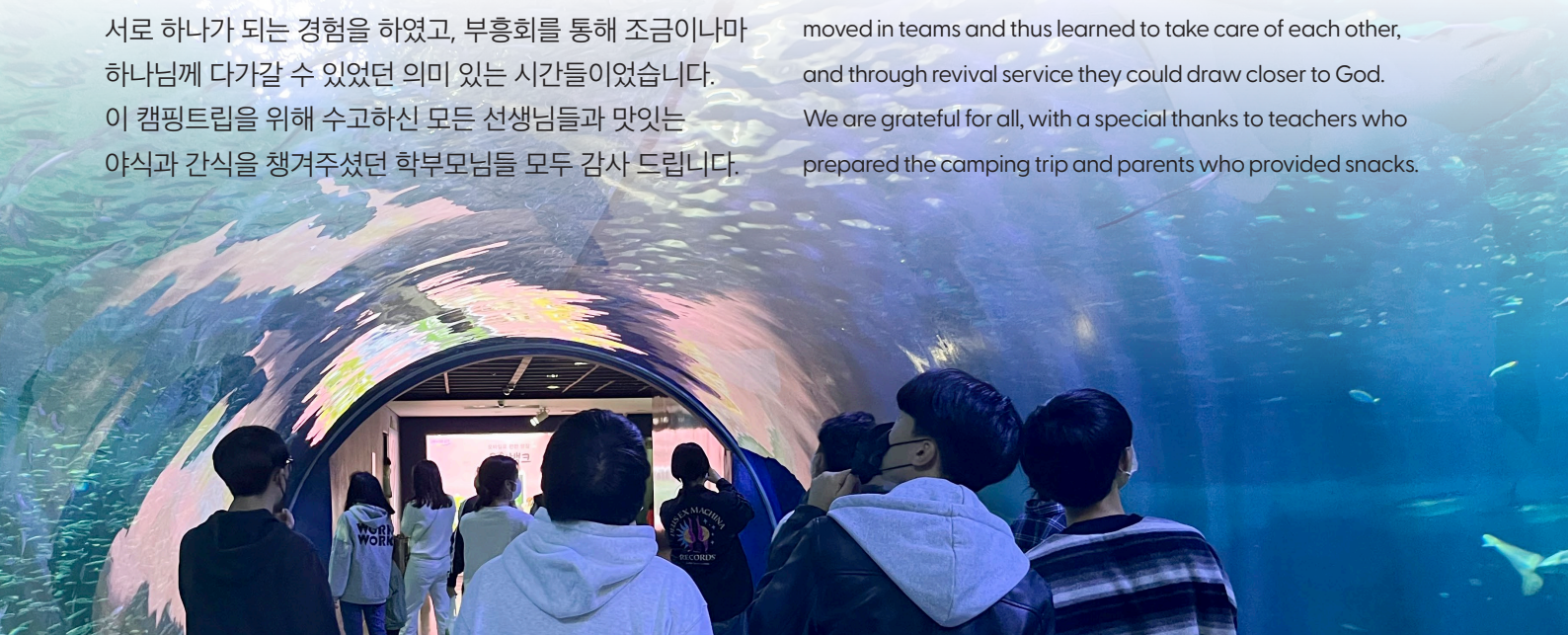


마지막 날에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숙소에서 짐을 챙기고 제주공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한림공원과 협재해수욕장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기념품샵에서 지인들께 사줄 선물을 샀습니다. 무거운 짐을 챙기고 비행기와 버스를 옮겨 타며 다시 학교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수학여행을 못 가다가 올해 제주도로 가게 되면서 감사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팀으로 움직이며 선후배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였고, 부흥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캠핑트립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과 맛있는 야식과 간식을 챙겨주셨던 학부모님들 모두 감사 드립니다.

distance from the parking lot and Young Shil course was 2 km long, some students wanted to give up before they even started, but once they climbed a beautiful scenery was awaiting them. It seemed that students shine more brightly outside of school, taking care of one another. After we finished the course, students returned to the hostel, had pork barbeque, and finally waited for the worship concert starring Hadash music. The 6th place star of Show me the money Anadelight's performance was a time of worshiping together rather than a show. His testimony on how he sincerely confessed his faith through rap in public broadcasting touched the hearts of students. If the first day's cheering audience were towards each other, the second day was a time of praising God with prayers and worship.



On the last day, students packed their bags and headed to Jeju airport, leaving all their regrets behind. They took group shots and bought souvenirs for family and friends at Hallim Park and Hyeopjae Beach. With heavy luggage, they were transported by plane and bus and safely arrived back to school. It seems that the camping trip at Jeju was a special time to be grateful, because we couldn't enjoy the experiences since COVID-19. Students had meaningful moments as they moved in teams and thus learned to take care of each other, and through revival service they could draw closer to God. We are grateful for all, with a special thanks to teachers who prepared the camping trip and parents who provided snacks.





캠핑트립 후기

Camping Trip Remarks

By 안현빈 | 학생회장

Mr. Hyunbin An · Student President

한라산 영실코스는 어렵지 않았으나 체력적으로 힘든 코스였습니다. 제가 치켜 있는 도중에 저희 팀에 있는 서은결(7A) 학생이 눈에 띄었습니다. 7학년에 몸집이 작은 친구였지만 산 위까지 올라오고 나서도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아?" 하고 물어볼 때면 웃으며 저에게 힘들지 않다고 말해주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웠던 점은, 서은결 학생이 한라산 등반을 끝내고 나서 내려오는 길에 보게 되었습니다. 영실코스 입구에서부터 버스까지 내려오는 길에 은결 학생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주워서 제 봉투에 넣었습니다. 저는 저희 조의 쓰레기만 잘 챙겨서 내려올 생각이었지만 은결 학생은 다른 사람이 땅에 버린 쓰레기까지도 주워서 제 봉투에 넣었습니다. 한마디 투덜거림 없이 묵묵히 산행길에 돌아오면서 쓰레기까지 줍고 가는 학생이 학생회나 팀 리더가 아닌 7학년 학생이었다는 것, 주웠던 쓰레기를 보여주면서 "이거 저희 학교 간식 쓰레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은결이에게 학생회장으로서 유구무언이었던 점, 4.3 박물관 주변의 쓰레기를 주울 때 솔직히 귀찮아 한 점, 등 선배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은 학생으로서 은결이의 착한 마음 씀씀이에 감동을 받고, 교훈적인 이야기라 생각되어 이렇게 나눕니다.

The Mt. Halla Young Shil course was physically tiring. While I was fatigued, I met Eunkyoul Seo(7A) who didn't seem tired at all. He said it himself, that he was fine. But what really caught my attention was how he voluntarily picked up garbage from the entrance of the course to the bus while coming down Mt. Halla, and threw it away in the garbage bag I was holding. I thought that all I had to do was take care of our own belongings, but when he brought trash without any complaint, I was ashamed as an older student. For he was not a member of the Student Council nor a team leader but a 7th grade student, and when he showed me the garbage and asked me if it's ours I didn't know what to say, and because it honestly felt like a burden picking up the garbage near the 4.3 museum. As a student like him, I would like to share Eunkyoul's kindness and the lesson I learned through his actions.

Counselor's Office News

학생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 활동

Student Language Culture Improvement Education Week

집단상담 활동

(또래 상담자와 함께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

Peer Counseling Activities

(Conduct a Group Counseling Program with Peer Counselors)

07

By 장정은 | 상담 교사

Ms. JungEun Jang · School Counselor

학생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 활동

Student Language Culture Improvement Education Week

긍정 언어 선물 배달

Positive Language Gifts Delivery



일시 2022년 10월 13일

대상 전교생

내용 긍정적인 메시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나눔



Date October 13th, 2022

For All students

Activity Handed out positive messages and small gifts

집단상담 활동 (또래 상담자와 함께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

Peer Counseling Activities (Conduct a Group Counseling Program with Peer Counselors)



대상 기숙사 또래 친구들

일시 2022년 10월 20일

장소 진로부실 (미션홀 201호)

리더 학교 상담사

보조 또래상담사 강수하 (11B)

내용

- ① 집단상담에 대한 설명과 기본규칙에 대한 설정과 행동규범의 설정을 부리더자가 집단원들을 도우며 진행해 본다.
- ② 활동을 통해 집단원들이 서로 친숙하고 수용과 신뢰의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며 경험해 보도록 한다.
- ③ 집단원들이 고민을 표현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노출하였을 때 서로 돕고 위로 받고 수용받는 느낌을 경험해 보도록 한다.
- ④ 집단의 갈등 단계를 넘어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공감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경험해 보도록 한다.



For Friends of the same age living in the dormitory

Date October 20th, 2022

Venue Counselor's Office (MH 201)

Leader Counselor

Subleader Peer counselor Suha Kang (11B)

Activity

- ① Subleaders helped and proceeded by explaining group counseling and setting basic and behavior rules.
- ② Guided groupmates to make a familiar, trusting and embracing atmosphere with activities.
- ③ Provided experience on receiving help, comfort and embrace when groupmates showed their concerns or negative behavior.
- ④ Provided experience on receiving empathy and cooperation to overcome group conflict and negative behavior.

Library News

공모전 - 백일장 수상 소식

Writing Contest Awards

더불어 서평

'Along With' Book Reviews

도서부 특강 | 인디자인 소개

Special Lecture For cocoboco | InDesign Introduction

08

By 이희정 | 사서

Ms. Hee Jung Lee · Librarian

공모전 - 백일장 수상 소식

Writing Contest Awards

풍성한 열매로 깊어가는 가을,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 25회 전국시조공모전'과 우리지역 애린 재단에서 주최한 '제 23회 재생 백일장'에 참가한 학생들이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지역과 학교에 선한 재능을 발휘한 학생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축하하며 기쁨의 박수를 보냅니다. 수상 작품 및 수상소감문을 올려드립니다.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고 응모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As autumn ripens with abundant fruits, we announce good news. Some of our students who applied rang the bell of the '25th Shijo Writing Contest' and '23rd Jaesaeng Writing Contest' held by the Aerin Welfare Foundation. Congratulations! We are proud of our students sharing their talents locally through the grace of God. As we present the awarded works, we would like to thank all students for your support and interest.

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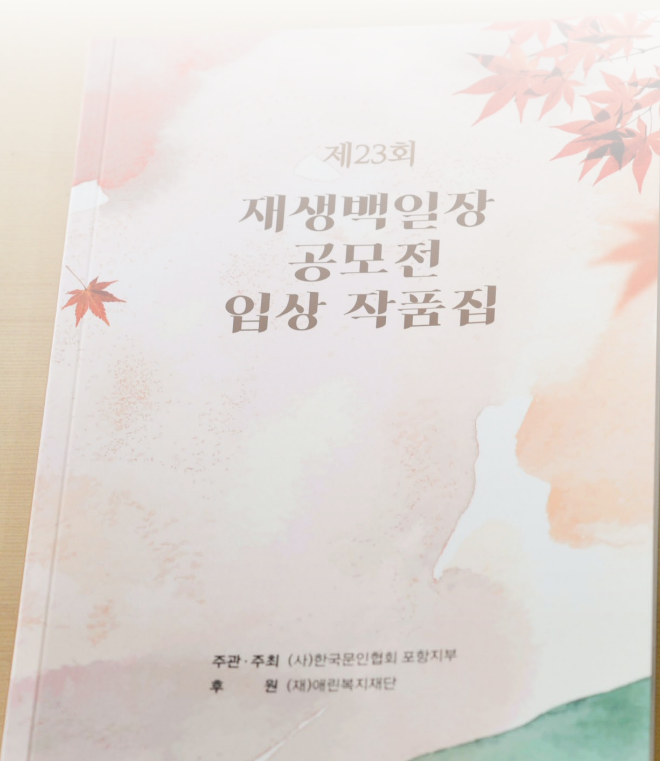
Student Awards

제 25회 전국시조공모전 학생부 | 25th Shijo Contest

수상 구분 Award	수상자 Awardee	수상 부문 Category
장원 · 1 st Place	류타미 · Tami Ryu (9B)	중등부 시조 · MS Poetry

제 23회 재생백일장 학생부 | 23rd Jaesaeng Writing Contest

수상 구분 Award	수상자 Awardee	수상 부문 Category
차상 · 2 nd Place	김건 · Keon Kim (9A)	중등부 운문(시) · MS Poetry



봄 내음

류타미 (포항 한동글로벌학교 9학년_중등3)

노랑이 시작을 알리며 찾아오는 연한 봄
봄이 찾아올 때면 봄 내음이 느껴진다
가끔은 송진 가루에

수상작품

Awarded Works

류타미 • Tami Ryu (9B)

봄내음

노랑이 시작을 알리며 찾아오는 연한 봄
봄이 찾아올 때면 봄내음이 느껴진다
가끔은 송진가루에
재채기가 날테지만

가끔은 봄내음에 숨이 막혀 힘들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긋한 색을 띄는
그것이 꽃의 봄이다
너도 꽃, 너도 봄이다

Fragrance of Spring

Spring comes with a tender yellow
The fragrance comes with spring
Though it may sometimes
bring along a sneeze from rosin powder

Sometimes the fragrance is unbearable
Yet the scentful color
That is the spring of a flower
You are a flower, You are spring

못

달력을 장식하려고 벽에 못을 박는다
망치로 쿵쿵 몇 번이고 치다 보면
어느새 벽에 스며들어 벽과 달력이 하나된다

하나의 달력이 내 집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도무지 못을 보지 않는다
달력을 장식하는데도 벽시계 걸 때도

못이 없으면 결코 못 하는 것인데도,
그런데도 사람들은 못을 보지 않는다
그렇게 못은 쇠약해진다, 점점 못난 얼굴로

당황한 못은 제 몸을 숨기려 굴러간다
일천 오백도가 넘는 뜨거운 불을 견디고
뒤뚱 살아남은 쇠는, 못이 되었을텐데

Nail

Nail on the wall to hang a calendar
Once it gets hammered
The wall and calendar become one

A calendar became a part of my house
But hardly do I see the nail
Holding the calendar, the clock

Without a nail it can't hang
Yet people don't see
The nail gets weak, more crooked

It tries to hide itself
Though it has survived the fire
Higher than a thousand celsius

수상소감

Acceptance Speech

류타미 • Tami Ryu (9B)

봄내음을 거쳐 가을바람으로

어느덧 초록이 저물고 갈색빛이 맴돌기 시작하는 가을이 조심스레 찾아왔습니다. 평소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감정도 바뀌는 성격을 가진 탓에, 계절이 변할 때마다 울적해진다거나 또는 반대로 이유 없이 행복에 가득 차기도 합니다. 저는 평소 그런 저의 감정을 느끼며 시를 쓰기도 합니다. 이번 수상작 ‘봄내음’도 그런 저의 감정을 나타낸 시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 오랜 세월을 살아가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즐거움’으로 살아간 저로서는, 시조는 조각을 하나씩 맞추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 안에서의 ‘즐거움’이 매우 충족되는 문학 장르입니다. 그 조각들이 유리 조각인지, 종잇조각인지, 어쩌면 그것도 아닌 물이나 홍차 같은 액체라 바로 조각들이 혼합되어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시조의 다양성에 의한 ‘즐거움’이 되었답니다.

대구시조시인협회 제25회 시조 공모전에서, 저는 장원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었지만 저는 그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고개를 내민 새싹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시조라는 아름다운 노래를 알려주신 사서 선생님, 그리고 시 쓰기를 동아리에서 즐거 함께 한 저의 친구들, 이렇게 어여쁜 노래를 저에게 선물해주신 주님, 또 이러한 아름다운 운율을 노래할 수 있는 감정을 모든 순간에서 만들어주신 저의 부모님까지 이 영광을 그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개 내민 작은 새싹들을 맞이하는 귀한 공모전을 주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고, 저 또한 고개를 내민 작은 새싹 일테지만, 그런 새싹의 밑에 있는 작은 줄기를 발견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용기를 내어 큰 곳으로 나아가 언젠가는 봄내음 속에서 벚꽃 향기 풍길 만큼 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봄이 지나 가을이 오고, 초록은 저물어 갈색빛으로 물들어가지만, 또 가을만의 적적함을 느끼며 가을이 주는 선물 같은 감정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선물’일겁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Autumn breeze, following the fragrance of Spring

As green fades, we now see brown tinted around us, with the breeze of autumn. As my emotions change along with the season, I get gloomy or happy depending on the transition. Then I sometimes write out my feelings in poetry. Fragrance of Spring is one of the emotions I wrote down during the seasons.

Though I haven't lived a full life yet, I've cherished the 'joy' part of my life up till now. A Shijo is a genre of literature where you match each piece together, which definitely fulfills the 'joy' inside me. The piece may be glass, paper, or something like water or black tea, which means that they get mixed up together as liquid, but this became the 'joy' I feel through the variety of Shijos.

I am grateful for receiving the 1st place award in the 25th Shijo Contest, by the Daegu Shijo Poets Association. Yet I might simply be a bud sprouting by the help of many people. I would like to share the prize with our librarian teacher who taught me the beautiful song called a Shijo, my friends who enjoyed writing poems in our club, the Lord who has granted me such a beautiful song, and my parents who have allowed me to sing out my emotions every moment with this beautiful rhythm.

I am honored to be a part of this contest and would like to thank the host. Though I may be a small bud learning to sprout, I am grateful for being found as a small stem beneath that bud. My hope is to be brave and head forward to a bigger ground, growing strong enough to give out the scent of cherry blossoms, within the fragrance of spring.

As autumn comes after spring, green tinted leaves may fade into brown. If you can soak in the lonesomeness of fall and cherish the gift of emotions, that would truly be the 'present'.

Thank you once again.



봄 내음을 거쳐 가을바람으로

중·고등부 장원 류타미 (포항 한동글로벌학교 9학년·중등3)

어느덧 초록이 저물고 갈색빛이 맴돌기 시작하는 가을이 조심스레 찾아왔습니다. 평소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감정도 바뀌는 성격을 가진 탓에, 계절이 변할 때마다 울적해진다거나 또는 반대로 이유 없이 행복에 가득 차기도 합니다. 저는 평소 그런 저의 감정을 느끼며 시를 쓰기도 합니다. 이번 수상작 ‘봄 내음’도 그런 저의 감정을 나타낸 시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있는 작은 줄기를 발견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용기를 내어 큰 곳으로 나아가 언젠가는 봄 내음 속에서 벚꽃 향기 풍길 만큼 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봄이 지나 가을이 오고, 초록은 저물어 갈색빛으로 물들어가지만, 또 가을만의 적적함을 느끼며 가을이 주는 선물 같은 감정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선물’이겠지요.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수상작품

Awarded Works

김건 • Keon Kim (9A)

연습

새는 날기 위해
어미의 도움을 받으며
날개를 휘젓고 또 휘젓습니다

새끼 늑대도 사냥하기 위해
꿩의 눈을 피해 엿드리며
먹이를 쫓고 또 쫓습니다.

나도 이들처럼 연습을 합니다
당신에게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당신 앞에서 하는 말들을 더듬지 않기 위해
연습합니다

당신에게 하는 행동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
연습합니다.

지금 이 시도 당신에게 마음을 전하는
연습입니다.

당신에게 가까워질 때까지
나의 연습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Practice

A bird flaps its wings
with the help of its mother
flapping again and again

A baby wolf runs
to avoid the eyes of a pheasant
and hunts its prey

I also practice
to get one step closer to you

To not stutter
my words before you

To not make
a wrong move in front of you

This poem, too, is a practice
to send my heart to you

My practice will never end
until I get closer to you.

더불어 서평

‘Along With’ Book Reviews

바쁜 학업 중에도 꾸준히 읽고 서평을 쓰는 친구들이 있고 미디어 독서에 익숙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방식은 달라도 읽기와 쓰기 말하기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나누는 풍성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의 서평대회는 학년 말 다독상 시상에 평가 기준이 됩니다.

Some students continue writing book reviews in the midst of their homework and some are used to reading through the media. The method may vary but we hope that each student experiences the abundant joy of reading, writing, speaking, etc. with their choice. Book Review Contest results in our school library will be the evaluation criteria for Reading Excellence Awards at the end of the year.

제목 | 2미터 그리고 48시간
이름 | 김수하(7B)

Title | 2m and 48 hours
Name | Suha Kim (7B)

이 책을 만들기 위해

흥미로운 물고기 로고를 단 싱커. 이 일은 미마가 지하도시 시안의 꼭대기 층에 올라옴으로 인해 시작된 게임이다. 단지 스마트약을 사려는 순수한 목적으로 지하 125층에서 올라온 미마, 그런 미마를 운명처럼 만나 투명한 물고기를 건네준 헤이베이, 유전자 귀족 탕쯔칭 패거리, 자존감이 낮은 아이였으나 미마를 만나 성장한 다흙, 미마의 곁을 항상 든든하게 지켜주는 부건, 지긋지긋한 시안을 없애기 위해 공쥐를 만든 칸, 비록 인간들에게 만들어졌지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유전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의 유일한 행복을 주는 아마존. 이들이 모였기에 영화같고 날 하염없이 빠져들게 하는 하나의 책이 완성되었다.

인간의 잘못

싱커는 미마를 향한 헤이베이와 쿠게오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된다. 실제로 본 적도 없으며 이 모두는 작가님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을 때마다 모두 머리에 그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알 것 같다. 아마존, 그리고 미마와 부건, 다흙 그리고 이 밖에 많은 사람들이 시안에서 사는 이유는 모두 인간 때문이라는 것을. 인간이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책은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싱커에 나왔던 공쥐 같은 생명체들이,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일에 화가 난 생명체들이 인간들을 이기려 할 지도 모른다. 그때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들은 자신들이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라고 말하지만 이 세계 어딘가에는 인간보다 더 현명하고 더 강한 존재가 살고 있을 지도 모른다. 아직 세상에 나올 기회를 잡지 못할 뿐.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우린 이미 많은 생태계를 파괴했고 많은 생명체들을, 이 세상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풍부하게 만들어 준 생명체들을 과거로, 그저 사진 몇 장으로 남겨두었다. 매일 아침 이 세상의 눈부신 햇살을 마주할 때면 마치 어딘가에서 어둠이 슬금슬금 묵직하게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다.

To Make This Book

Sinker has an interesting fish logo. The game started when Mima came up to the top floor of Sian, the underground city. She just wanted to buy a smart pill, which brought her up from the 125th floor underground. Then she met Heybey who gave her a transparent fish, the Tang-ching genetic aristocrats, Dahub who had low self-esteem but grows after meeting Mima, Bugun who always stayed on her side, Kan, who made a bear mouse to get rid of Sian, Amazon, who gave hope and dreams to children, though left out of the society because he had no genetic. It all formed as a book like a movie, which I devoured.

The Human's Fault

Sinker starts with the suggestion by Heybey and Kugeo towards Mima. Since I never met them and this was all made by the author's imagination, it was hard to picture each scene while I was reading. But somehow I knew. That Amazon, Mima and Bugun, Dahub and others were living in Sian because of humans. If they hadn't made so much garbage, this book may not have even started. It could be that the creatures such as the bear mouse in Sinker try to win against humans because they have polluted the earth. Then what should we do? Human beings are known as the highest predator, but somewhere out there, might exist a stronger and wiser existence, waiting to come out to the world. But it's too late. We have already polluted the ecosystem and creatures, a lot of them, have been simply left as a picture in the past. Everyday morning, it seems that somewhere darkness creeps in under the sunny day. The floor of my house, the cold night air shown on the icy windows leave a

내가 밟고 서 있는 집의 바닥이, 내가 손을 대고 있는 밤의 냉기가 남아 있는 차가운 유리창이 마치 많은 이들의 생명을 짓누르고 애써 외면하며 만들어진 것 같아 죄책감이 든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도 ‘나 하나 짬’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는 이 모든게 하나씩, 눈덩이를 굴리는 것처럼 점점 커지고 커져 언젠간 그 죄값을 치르게 날이 오지 않을까. 시안에 어느날 갑자기 몰려와 사람들을 죽이는 곰쥐 떼를 움직이는 칸의 발악처럼.

어둠 속의 희망, 싱커로 오라

싱커. 싱커는 동조자라는 뜻이다. 말 그대로 한 동물에 동조한다는 것. 한 동물의 반려자가 되어 아마존을 맘껏 누비는 게임. 이 게임 속에서 늦둥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 시안, 유일한 희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건다.

싱커에 접속하라는 듯, 운명처럼 딱딱 맞춰지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미마는 두려웠지만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 갑자기 생겨난 이상한 동굴을 알아가기 위해 싱커에 접속한다. 물론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다. 그렇지만 틀에 자라는 풀이 더욱 강한 법.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평정심이 흔들리지 않는 미마와 고지식한 부건, 더 강건해지고 있는 다후과 많은 아이들이 있었기에 시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 하나의 강력한 태풍처럼 몰려오는 곰쥐 떼가 무서울텐데도, 오로지 시안을 위해 싱커들은 곰쥐 떼에 싱크하여 몇 날 며칠 끝에 곰쥐 떼를 진정시키는 것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칸을 찾는 와중에 부건과 미마가 보았던 지하도시 위 홀로그램이 아닌 진짜 하늘. 구름이 그림처럼 놓여있고 하늘을 바라볼 때 마다 느껴지는 따가운 빛. 그리고 온 세상을 감싸고 있는 푸른 빛. 이 모든 것을 지하도시 위에 있던 ‘진짜 세상’을 곰쥐 떼를 통하여 아이들은 경험한다. 그리고 그들의 세상은 바뀌고 있었다. 그 아이들을 통하여.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아이들을 통하여. 비로소 ‘진짜’를 경험하는 아이들을 통하여. 그리고 아이들이 보았던 인간이 만든 아마존이 아니라 진짜 아마존은 생길 것이다.

이 세상에 지친 자들이여, 새로운 세상을 접하고 싶은 자들이여 싱커에 접속하라!

mark of guiltiness as if it were made by avoiding the lives of many outside. One day, won't we suffer the cost of the sin of refusing to take responsibility, like snow rolling over and over to form a huge ball? Just as Kan's outcry on moving the bear mouses that swarm and kill people in Sian.

Come to Sink, the Hope in the Dark

Sinker. It means a sympathizer. Literally, to sympathize with an animal. A game of being a companion of one animal and enjoying Amazon all you want. The late-born children in this game take their life at stake to protect others, Sian, the only hope.

It was like destiny, to connect with Sinker. Mima was afraid but took the risk for our future, to get information of the odd cave. Inevitably, there were trial and errors. But as the grass growing on the field is stronger, Mima stands firm in the midst of a deadly situation. Thanks to the crew, inflexible Bugun, Dahub, who gets stronger along the way, and other children, Sian finds peace once again. Though the attack of bear mice must have been frightening, the Sinkers sink on the bear mouse swarm for days and successfully make them calm down, for the sake of Sian. The light that Mima and Bugun feel whenever they look up at the sky with real clouds(not a hologram) like a picture, while looking for Kan. The bluish light that encompasses the whole world. These are what the children experience, the 'real world' above the underground city, through the bear mice swarm. And their world was changing. Through the children. The children who were becoming real adults, who were actually having 'real experiences.' And finally, the real amazon will appear, not the one made by man.

Those who are tired of this world, connect to Sinker, the new world!

제목 | 영수증

이름 | 이예나 (8A)

“내가 장사를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부모도 없는 어린 네 월급이야 어떻게든 해 주려 하였던건만 그것도 마음처럼 안되는구나...내 모두 네게 맡기는 것이니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서 너나 써라.”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한 말이다.

처음에 이 소설의 초반부를 읽었을 때는 주인공이 그저 나쁘고

Title | Receipt

Name | Yena Lee (8A)

“Since you're young and don't have parents, I tried to do whatever it takes to provide your salary when I quit, but that doesn't seem to work...I'm leaving it all in your hands so get what you can and use it for yourself.”

This is the line by the owner of the house in the novel.

주인공이자 주인장의 가게에서 일하는 노마에게 허드렛일만 시키는 게으름뱅이인줄 알았는데,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노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려고 하는 따뜻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자기도 나름대로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주인장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주인장도 노마와 같이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 그래도 조금은 편하게 살 수가 있는 세상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노마에게 자기는 필요 없다면서, 남은 외상 값들은 노마 너나 써라 라고 했다. 사실상 이 책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주인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노마도 물론 힘들었을 것이다. 심부름 한다고, 외상값 받아온다고, 서빙한다고. 어떻게 보면 책의 앞 부분에서는 노마가 더 힘들어 했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책 뒷부분을 읽고 나면 주인장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 것이다. 노마와 함께 우동을 먹을 때 진심으로 노마에게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없는 노마를 자기 혼자서 잘 챙겨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다.

“영수증”이라는 소설 속에는 오서방이 등장한다. 오서방은 항상 가게에서 값을 외상으로 치른다고 하고 한번도 돈을 주지 않은 사람이다.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서방은 돈도 많다. 오서방의 이런 비겁한 행동을 보고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돈을 좋아해서 오서방처럼 사기라고 쓰고 사기라고 읽지 않는, 도둑질로 쓰고 도둑질로 읽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 사회에서는 안타깝게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이라도 더 사랑하면 안 되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돈으로 인해 악한 길로 빠지는 상황이 셀 수 없이 많다.

이 소설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1930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21세기의 모습과 유사한 점을 많이 다룬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경쟁해야 하는 기업들과 가게들,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결국 그 방법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돈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욕심, 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 권력자를 결정할 때는 한 사람의 지혜나 판단력이 아닌 돈이 가장 기준점이 된다는 이 안타까운 사실이 책과 현실에서 둘 다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떤 길로 발전을 하든, 어떤 길을 개척해 나가든,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부자일 것이라는 점에 많은 생각을 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장처럼,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싶다.

주인장이 노마를 도와준 것처럼 나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꼭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아니더라도-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않고 도와주어야겠다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와 복음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우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지금 공부해야 할 때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으니 지금 이 나이에 걱정없이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친구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겠다.

At the first part of this novel, I thought the owner was a bad and lazy character, assigning all the chores to the worker Noma, but at the last part, it was heart-warming to see the owner trying to give all that he had for Noma. He himself needed his own money. Everyone needs money to live in this world. The owner, like Noma, didn't prioritize money but needed it for a more comfortable life. Yet he said that he didn't need it and gave it to Noma. Actually, the owner in this story was the one who was having a real hard time. Of course, Noma had his own difficulties running errands. At first, it might seem that Noma is going through a hard time, but after reading the whole book, you can think about the owner's side of the story, how hard it was for him. How he shed tears because he was genuinely sorry when having udon with Noma, burden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taking care of Noma who lost his parents.

Mr. Oh is another character in the story. He always takes credit on the owner's restaurant and never pays his debt. He is rich, as you can see in his name. I could feel the irony of reacting to his selfish actions, thinking 'What's wrong with him?' and yet knowing deep down how we are not that different from him. In the society, there are such incidents, by people who desire money and justify their greed like Mr. Oh. Especially for us, as God's children, we must not put anything before Him and yet some fall into evil schemes due to the love of money.

Though the novel is set in the 1930s, I think we can find many similarities with the present 21st century. Corporations work and compete endlessly for more profits, doing whatever it takes to earn more and more, even if it may not be moral, which makes the power of possession as the qualification of a leader, and not the sound judgment or wisdom of a person. This is what both the book and our reality shows. It made me think about how the beneficiary will always be the richest person. I decided to keep in min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s not money, as the owner shows in the book.

Just as the owner helped Noma, who needed financial help - even if I may be in a more difficult situation - I decided to help them as I am God's child, so that they can encounter the truth and the gospel. Also, I will always be grateful for receiving education at a school from good teachers with friends at my age, remembering that some children do not have this opportunity.

도서명 | 마법소녀는 왜 세상을 구하지 못했을까
제목 | Tomboy도 소녀인데 B사감은 소녀가 아니다
이름 | 유승주 (11C)

소녀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 생각나는 이미지는 모두 다르겠지만, [작은 아씨들]은 소녀의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호숫가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고, 틈틈히 소설을 쓰고 읽으며, 함께 모여 수다를 떠는 모습은 낭만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소설의 아련하고 감성적인 풍경과, 네 자매의 생기있고 사랑스러운 모습도 한 몫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네 자매가 내면으로나 외면으로나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소녀는 여자의 일생 중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소녀는 언제 소녀가 되지 않게 될까요? 성인이 된 후? 결혼을 한 후? 정답은 아름답지 않아질 때 입니다. 일상에서나, 특별한 사건 속에서나 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소녀이고, 소녀이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추레한 모습도 아름답고, 한껏 꾸민 모습도 아름답고, 도전적인 모습도, 수동적인 모습도, 성숙하거나 미숙하거나 모두 아름답습니다. 소녀가 하는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녀가 남의 시중을 들고 빨래를 하건, 아가씨가 시중을 받으며 드레스를 입건, 소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실제 하녀의 삶은 고되고 아가씨의 삶은 억압 되었겠지만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타인이 아름답다고 느끼느냐 입니다. 어떤 소녀들이 스스로가 추하다고 느껴도 타인이 보았을 때 아름답고 매력을 느낀다면 그녀들은 소녀입니다.

다시 말해, 소녀는 타인이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B사감과 러브레터]에서, B사감은 추한 존재이고 소녀가 되고 싶으면서도 소녀를 부정하는 모순적인 인물입니다. 여학생들의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마음은 뜻뜻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B사감의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마음은 추하고 불쌍합니다. 소설에서는 B사감의 모순된 태도가 위선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묘사되지만, B사감이 다른 행동을 취했다라도 B사감은 추해 보였을 것입니다. B사감은 못생긴 노처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롤리타]도 늙은 남자와 소녀의 로맨스를 그렸다고 순수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B사감이 소녀의 내면을 가진 순수한 인물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늙고 못생기며,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소녀를 꿈꾸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가가, 책 속 인물이 보는 B사감은 혐오스럽습니다. 아름답지 않으면 사랑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B사감의 낭만은 숨겨진 내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공포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이전에는 유성애가 소녀 문화의 정말 큰 부분이었습니다. 주먹 두 개로 지구를 위협하는 괴물을 물리치는 마법소녀들도 좋아하는 남자아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결말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녀 문화는 무언가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자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엘사와 안나 같이 여러 매체들은 이제 "왕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노래합니다. 걸그룹 G-IDLE에서 많은 소녀들의 가슴을 뒤흔든 노래 [Tomboy]는 "나는 너(남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사랑도 필요 없고, 여자다운 것도 필요 없으며, 직접 남자가 되겠다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Girls

Book Title | Why couldn't the Girl with Magic Powers Save the World
Title | Tomboys are a girl but the B houseparent is not
Name | Seungju Yoo (11C)

The image brought to the mind when people think of a 'girl' may differ, but I think the most general is the image in [Little Women]. Painting near a pond, reading novels during spare time, and chatting with each other gives a romantic impression. The emotional scenery and lively characters of the four girls definitely formed this image, but the point is that they were lovely inside and outside.

A girl is a part of one woman's entire life. Then when does a girl change? After becoming an adult? After marriage? I think it's rather when she refuses beauty in her life. A girl is beautiful because she remains a girl in her everyday life along with special moments. When her looks are not furnished, when she looks her best, challenges herself, stays passive, mature or not, a girl is beautiful as she is. Whether she works as a maid, does laundry for someone, helps a young woman wear a dress, what she does is all beautiful. The life of a maid or a young woman will be under pressure, but what's important is that others can feel her beauty. Some may deem herself as unsightly, when others see her beauty and charm. These people are who I think of as a girl.

In other words, a girl is defined by others. In [B Houseparent and a Love Letter], the B houseparent ironically wants to be a girl but refuses to be a girl. When students say they "want a romantic relationship" it is from the heart of a girl, unlike the houseparent, who does not manifest the beauty of one girl. The novel illustrates how she is hypocritical but apart from that, she is an ugly old woman, unmarried. Some at least say that [Lolita] depicted how an old man and young girl can love each other, but why don't people think the houseparent is a girl? They think that someone like her is not beautiful and so she cannot love someone. Because her romance is not derived from her inner beauty and can even be offensive to others.

Allosexual was the main part of girl culture. Girls with magic powers who beat monsters with their bare hands weren't exempt from a boy they like, and the story ended with them marrying and forming a household. But now, something has seemed to change. Elsa and Anna sing how they don't need a prince. Girl group G-IDLE's Tomboy declares that they don't need a man. They don't need love, femininity, they sing about becoming a man themselves. But the girls who shout that 'Girls can do anything' follow

can do anything'을 외치는 소녀들은 아이돌을 따라 다이어트를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다양하지만 아름다운 소녀상을 가슴 속 깊이 새깁니다. 여자로서 구속받지 않겠다는 선언조차 아름답게 꾸민 모습에서 이루어지는 모순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돌 문화는 소녀문화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녀문화는 소녀가 소비하는 문화이자 소녀를 정의하는 문화입니다. 소녀문화를 통해 소녀는 현실에 존재하게 되지만, 현재의 소녀는 현실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이상향처럼 보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인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소비되는 소녀문화의 주도권이 소녀가 아닌 사람들 - 남성, 부모, 어른, 사회, 그 외 어린 여자아이가 아닌 모든 사람들 - 에게 쥐어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자아이들이 공주가 되기를 꿈꾸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가요, 늘 그래왔기 때문에 손에 쥐어진 것인가요? 소녀들은 아름다워지고 싶습니다. 화장을 하고, 세심하게 신경 쓴 옷을 입고, 타인이 보는 소녀를 학습하고 소녀가 됩니다.

아름답지 않으면 소녀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아름다워지고 싶습니다. 소녀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었습니까.

idol groups by going on a diet and dream of a beautiful model type of a girl that they want to be. The decision not to be under someone itself is ironically an attempt to adorn themselves with something else. I think this is why the idol group culture could fit with girl culture.

Girl culture is the culture that girls consume and what defines them. By girl culture, a girl exists in reality, but seems like an ideal beauty. Seeking beauty is, of course, a natural part of humanity. But how is it that the initiative on re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girl culture has actually been given to men, parents, adults, society, and others but the girl herself? Is it natural for girls wanting to be a princess, or has it just always been this way? Girls want to become beautiful. They put on makeup, carefully dress themselves, learn how others observe her, and become a girl.

A girl is not a girl if she is not beautiful. So we desire to be beautiful. What else can we be?

학생들의 더 많은 감상문은 경북독서교육종합시스템을 통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For more students' book reviews, click the following link: <https://bit.ly/3s3alKb>



도서부 특강 | 인디자인 소개

Special Lecture For cocoboco | InDesign Introduction



지난 학기 '북디자인' 강의에 이어 도서부 학생들과 어도비 '인디자인' 프로그램 특강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학교 뉴스레터 HIS Connection을 예시로, 책을 제작할 때 필요한 구성 요소를 살핀 후 인디자인 프로그램이 가진 기능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 디자인이나 책 제작에 참고할 만한 추천도서를 소개하였고 실습 자료를 받은 후, 관심 있는 학생들은 질문을 하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차례의 강의로 디자인에 대한 흥미를 돋우고 도서부만의 책을 제작하는 데에 유익한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Cocoboco students had a special time following last semester's 'Book Design' lecture. Looking into our school's newsletter HIS Connection, we found general components used in book production and learned the functions of the InDesign(Adobe) program. At the end, they were introduced to recommended books and some students showed their interest with questions on the worksheets they received. Hopefully, through both lectures, book club students gain more interest in design and motivation on producing cocoboco's own book.

Nurse's Office News



11월 11일 '눈의 날'
November 11th 'Eye Day'

09

By 이지원 | 보건 교사

Ms. Jiwon Lee · School Nurse

최근 학교에서 학생들의 시력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 중에 양쪽 눈이 시력 차가 많이 나는 학생도 있고, 안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잘 쓰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학생은 시력이 많이 변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대기 중 습도가 급격히 낮아져 눈이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건강한 눈을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Recently, we had a check up on students' eyesight. Some students had a big difference between both sides and some had glasses but did not wear them regularly. However, as they grow day by day, eyesight is an important matter during growth. The humidity in the atmosphere during fall and winter rapidly decreases and makes the eye dry easily. We recommend the following tips for healthy eyesight.

건강한 눈을 위한 수칙**Tips For Healthy Eyes**

- 눈의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기
- 쉬는 시간에 창 밖을 내다보기
- 수시로 눈동자를 움직이며 눈 운동하기
- 책을 볼 때 30cm 이상 거리 유지하기
- 30분 TV 시청 후 눈 운동하기
- 컴퓨터 사용 시 모니터와 40cm 이상 거리두기
-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잠을 충분히 자기
- 눈에 좋은 음식 비타민A 섭취하기
(고구마, 당근,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토마토, 블루베리, 굴)
- 잠자리에 핸드폰 가져가지 않기
- Rest and allow your eyes to relax
- Look out the window during intervals
- Do exercise for your eyes by moving your eyeballs often
- Keep distance(more than 30cm) from a book when reading
- Do an eye exercise after watching TV for 30 minutes
- Keep distance(more than 40cm) from the computer screen
- Maintain a proper posture and have enough sleep
- Have food containing vitamin A which is good for eye health (Sweet potato, carrot, paprika, lettuce, spinach, tomato, blueberries, tangerine)
- Don't take your phone to your bed

이럴 땐 안과검진을 받으세요**Have a Check up if:**

- 눈을 찡그린다.
- 눈을 자주 비비거나 깜박거린다.
- TV를 가까이서 본다.
-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한다.
- 눈물을 자주 흘리거나 빛에 민감하다.
- You wrinkle your eyes.
- You rub your eyes or blink often.
- You watch TV up close.
- You have a headache often.
- You drop tears often or are sensitive to light.

<눈체조> 같이 해봐요

<Eye Exercise> Try it yourself



“스마트폰, 컴퓨터의 과도한 사용이 10대 청소년의 근시 유발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근시는 수술이나 약물 치료로 좋아지기 어려워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10대 시절의 근시예방과 관리가 평생의 시력을 좌우합니다.

Research tells us that “Excessive use of smartphones or computers is causing short-sightedness for the youth.” Short-sightedness is difficult to cure through medication or surgery, so prevention is crucial, especially during the youth stage which forms permanent eyesight.



Awards



봉사상

Community Service Award

제 24회 전국 학생 통계활용 대회

24th National Student Statistics Utilization Contest (by Statistics Korea)

제 24회 전국 초·중학생 음악콩쿠르 대회

24th National Elementary·Middle School Music Contest

중학교 토론한마당

Middle School Debate Competition

제 7회 초록우산 감사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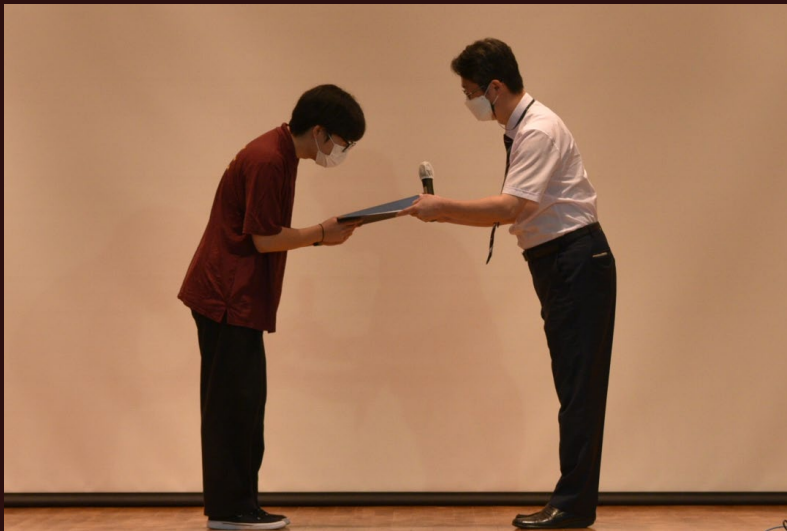
7th National Appreciation Letter Contest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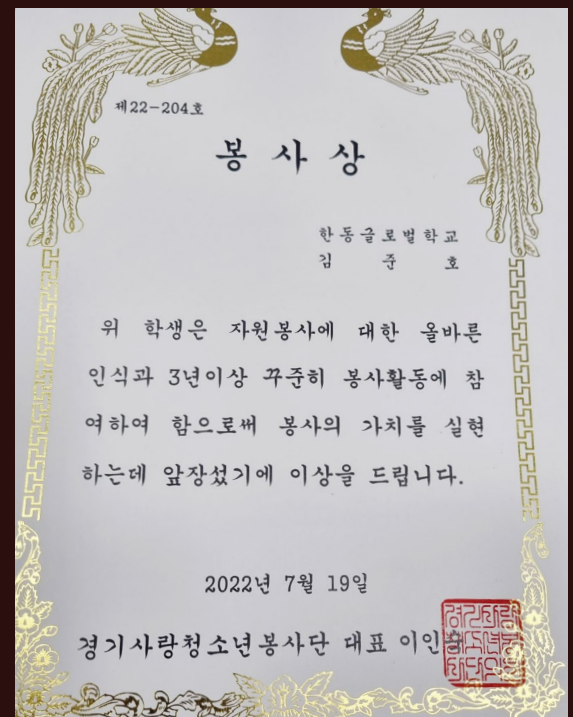
수상자 Awardees

Congratulations!

봉사상 Community Service A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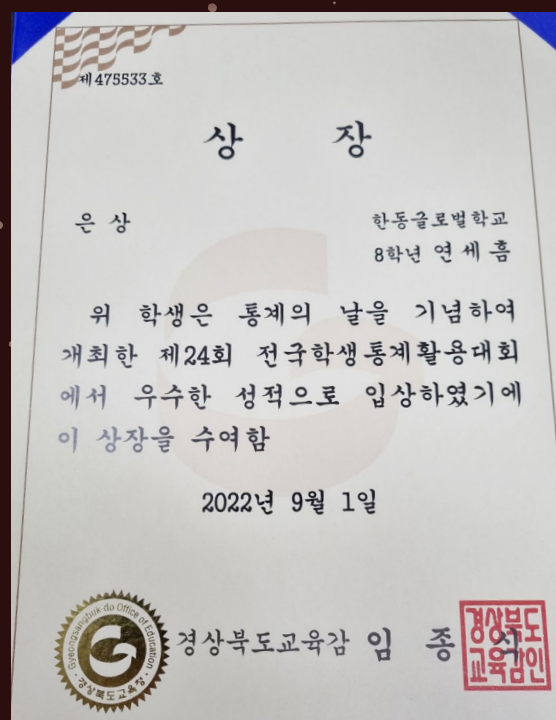
김준호 • Junho Kim | 1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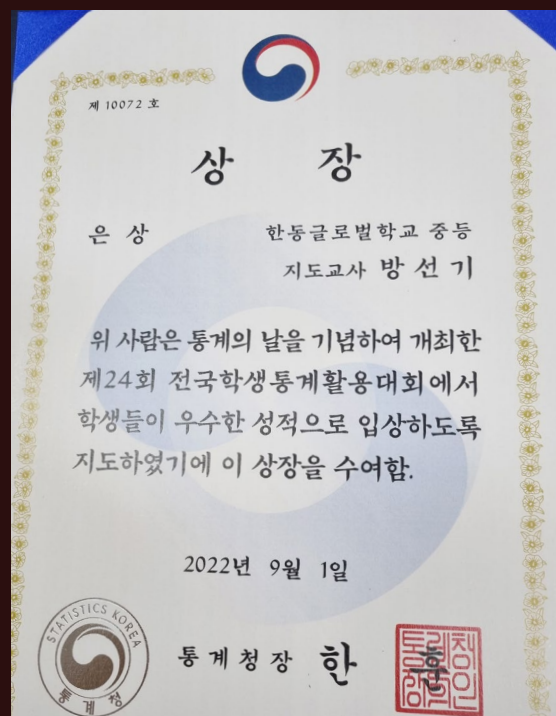
제 24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통계청 주최)

24th National Student Statistics Utilization Contest (by Statistics Korea)

연세흙 · Seihum Yeon | 8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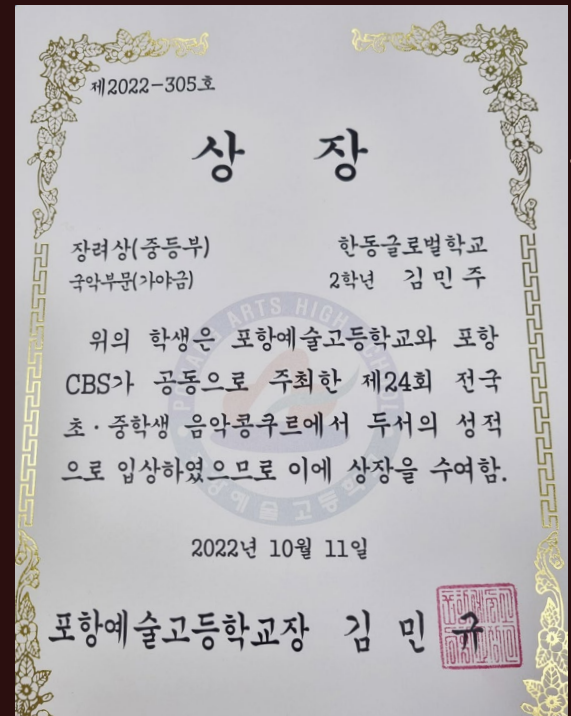
방선기 지도교사 · Mr. Sunki Pang | Teac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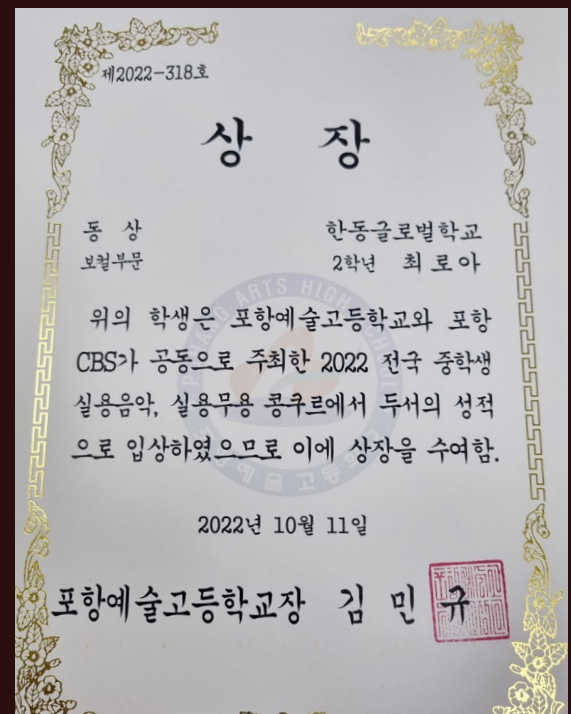
제 24회 전국 초·중학생 음악콩쿠르

24th National Elementary · Middle School Music Contest

김민주 • Minju Kim | 8B



최로아 • Roa Choi | 8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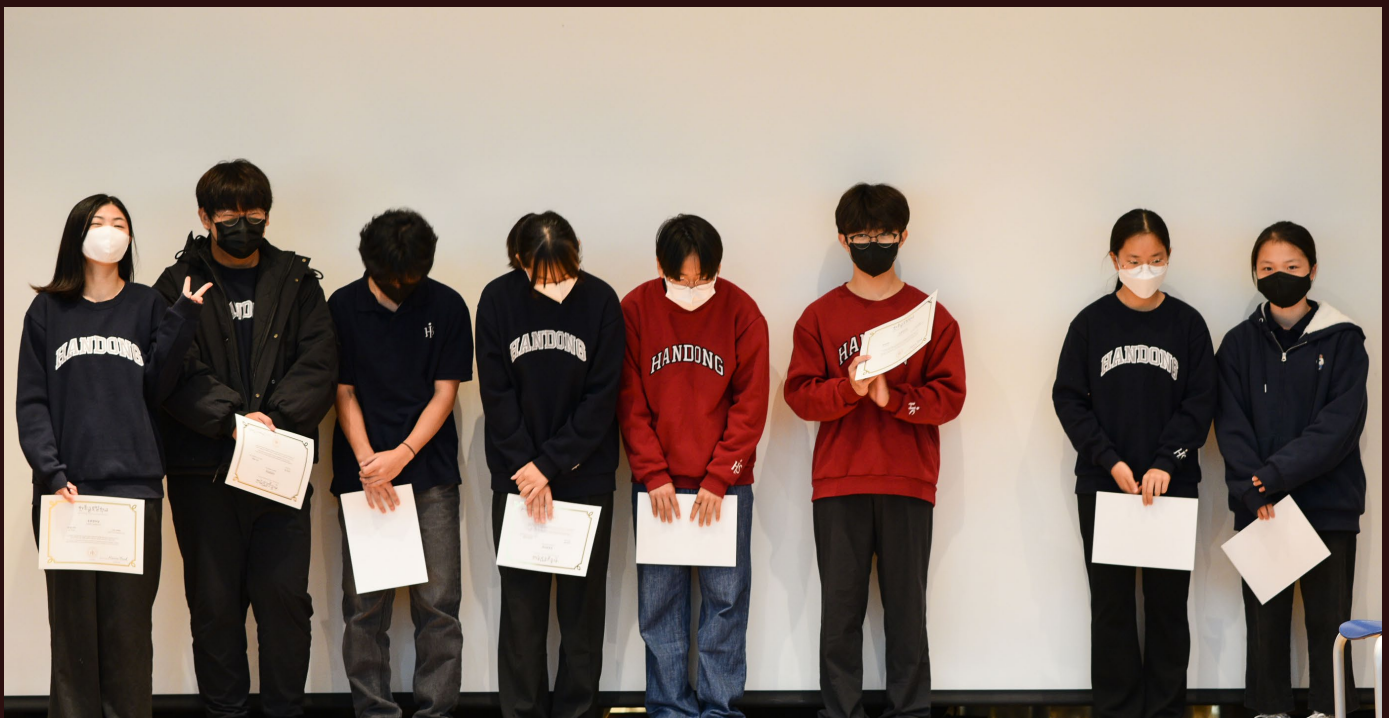


중학교 토론한마당

Middle School Debate Competition



임건, 최한결 • Geon Lim, Hankyul Choi | 9B



제 7회 초록우산 감사편지

7th National Appreciation Letter Contest

장려상을 수상한 학생 명단입니다.

Here is the list of Participation Awardees.

수상자 Awardee	학년 Grade	수상자 Awardee	학년 Grade
김하은 · Haeun Kim	1 st Grade	김수하 · Suha Kim	7B
이아인 · Daniel Lee	1 st Grade	김하울 · Hayul Kim	7A
김승연 · Deborah	2 nd Grade	류모모 · Momo Ryu	7B
김시은 · Daisy Kim	3 rd Grade	최고은 · Koeun Choi	7A
백건우 · Geonu Baek	3 rd Grade	정주현 · Juheon Jung	8A
송영신 · Yeongshin Song	3 rd Grade	김형빈 · Hyeongbin Kim	9A
백도은 · Samuel Paik	5 th Grade	이예영 · Yeyeong Lee	9B
윤채원 · Lucy Yoon	5 th Grade	권주안 · Jooahnn Kwon	10B
임소울 · Irene Lim	5 th Grade	김가빈 · Gabin Kim	10B
이하윤 · Lina Lee	6 th Grade	김정원 · Jungwon Kim	10A
		송예슬 · Yeseul Song	10B
		유성연 · Sungyeon Yoo	10B
		조하경 · Hakyong Cho	10C
		최준서 · Junseo Choi	10B
		김소윤 · Soyoon Kim	11B
		오다인 · Dain Oh	11B
		유승주 · Seungju Yoo	11C
		윤하영 · Hayoung Youn	11B
		이유진 · Yujin Lee	11B
		이은우 · Eunwoo Lee	11C
		이진명 · Jinmyeong Lee	11C
		이지민 · Jimin Lee	12B
		이한 · Han Lee	12C
		이혜선 · Hyesun Lee	12C
		정승민 · Seungmin Jeong	12B



HIS Connection
Archive

2019 - 2021

<https://bit.ly/3v2RN43>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Romans 12:2





Renew
Our
Mind!